Entertainment p/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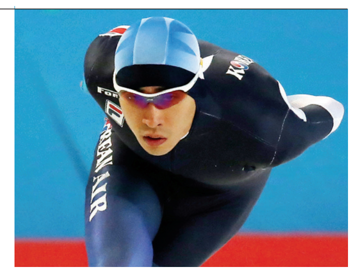


안방극장 男男커플 뜬다

metro®

메트로 2014년 2월 28일 금요일 제2924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3



이승훈 동계체전 대회신

소득 대비 가계 빚 확 낮춘다

금리상한부·중기 분할상환 등 통해
정부, 2017년까지 현재보다 5%P↓

정부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핵심 관리 지표로 설정하고 오는 2017년 말까지 현재보다 5%포인트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목표 관리에 나서는 한편, 새로운 대출 상품과 세제 혜택을 통해 질적인 구조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40%까지 확대하는 한편 금리상한부 대출, 만기 5~10년의 중기 분할상환대출 등 소비자의 상환 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수 기반 확충 분야 핵심 과제의 일환으로 관계 부처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7일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을 관계 기관 합동으로 마련하고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는 우리 경제의 내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억누르고 있는 부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관계 기관 공동의 인식과 정책 의지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021조원. 정부는 일단 그동안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대출 구조가 개선되고 증가 속도도 둔화되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일시상환,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고 저소득층 및 영세자영업자 등이 높은 이자를 무는 대출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상환 능력이 악화되는 등 부문별 취약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뿐 아니라 금리가 비싼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주택담보 아닌 대출이 늘어나는 등 질적 악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다 채산성 악화 등에 시달리는 기업대출마저 늘어나고 있어 한계에 처한 기업이 부실에 빠지면 기업 종사자와 거래 업체 등 연쇄적 부실화에 따라 우리 경제에서 타격을 입는 범위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 규모가 963조원에 이르고 있다. 예금취급기관과 기타 금융기관 가계대출을 합해 지난 한 해만 약 57조613억원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만 해도 예금취급기관 대출 증가가 주도했지만 최근엔 여신업계 등 금리가 비싼 기타 금융기관 대출이 더 많이 늘었다. 2007년 말 대비 지난해 말 은행권 등 예금취급기관 대출은 213조920억원 늘어난 데 비해 기타 금융기관 대출은 119조7962억원 늘어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채 비율을 줄이는 작업과 함께 금리상한부대출, 만기 5~10년의 중기 분할상환대출 등 소비자의 상환 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최고 한도를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조정하고 만기 10~15년 대출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주택저당채권(MBS)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한은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에 포함하고 만기를 통합 발행할 예정이다.

영세 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의 지원 규모도 확대하는 한편, 연 15% 이상 고금리 대출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오랜 기간 누적돼 온 고질적인 문제로서 금융시장의 주요 불안 요인일 뿐만 아니라, 민간 소비를 제약하는 원인"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가계부채 구조가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빠르게 개선됨에 따라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완화되고 가계 소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원기자 pjw89@metroseoul.co.kr



월드컵 유니폼 어때요? 브라질 월드컵을 수놓을 태극전사의 유니폼이 공개됐다.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 축구 대표팀 유니폼은 태극문양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붉은 상의와 푸른 하의로 구성됐다. 목 안쪽에는 '투혼'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선수들의 정신력 강화를 독려했다.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한다. 한 끗의 후회도 없이 월드컵을 준비하고 마치고 싶다"며 결의를 다졌다. <관련기사 23면> /연합뉴스

北 단거리 미사일 4발 발사

북한이 27일 오후 스커드 미사일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후 5시42분부터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일대에서 북동 방향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발사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추가 발사 및 도발 가능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현재 발사체의 사거리가 200km 이상인 점을 고려해 스커드 계열의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 스커드 계열 미사일이 맞는다면 2009년 7월 4일 시험발사한 이후 5년 만이다.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 미사일은 사거리 300km인 스커드-B와 사거리 500km인 스커드-C, 사거리 700km 이상인 스커드-D 등이다.

군 관계자는 다만, "신형 지대함 미사일인 KN-02의 개량형이거나 300㎜ 이상 신형 방사포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의 대응 차원으로 보고 있다. 실제, 북한 경비정은 24일 밤 NLL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했다.

또 당시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키 리졸브 훈련이 한반도 긴장을 노린 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하고, "북남관계 개선과 조선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공화국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선옥기자 pso9820@

겸손한 한류스타가 해외서 사랑



기자 수첩
탁 진 현
<연예스포츠부 기자>

해외에서 꾸준히 사랑을 받는 한류스타와 그 매니저들을 만날 때마다 듣는 말이 있다. 해외 진출은 문화 교류의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공략만을 노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그럴 경우 스타에 대한 해외 팬들의 호감이 반감될 수 있다고 한다. 한때 중국이나 일본에서 일었던 반한류 움직임도 그런 이유가 크다.

그래서 자신의 해외 인기를 부풀리기에 급급한 많은 스타들과 달리 명성 있는 한류스타들은 오히려 과포장되는 것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 '점령' '공략' '특급 대우' 등으로 포장되는 언론 보도도 상당히 조심스러워한다.

요즘 같은 시기에 이 같은 한류스타들의 조언은 주의 깊게 새겨들을 만하다. 국내 스타들의 해외 진출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기 때문이다. 이전만 해도 '대장금'과 같은 드라마의 인기가 해외에 퍼지려면 몇 년이 걸렸지만 최근엔 인터넷의 발달로 문화를 소비하는 데 국내와 해외의 시차가 없어졌다.

요즘 국내 시청자들이 SBS '별에서 온 그대'에 열광할 때 중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드라마에 빠진다. 이에 따라 김수현·전지현의 인기도 중국에서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시기는 분명 한류에 호기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호기가 악재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시기에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자신을 좀 더 겸손하게 낮추고 해외 팬들을 소비자가 아니라 문화를 나누는 사람들임을 기억한다면 한류는 시간이 지나도 시들지 않을 것이다.



복사꽃 활짝 포근한 날씨를 보인 27일 오후 세종시 연동면 예양리에 위치한 하우스에서 복사꽃이 활짝 피어 있다. /뉴시스

LH 등 5개 공기관 빚 감축안 '퇴짜'

방만 경영 과잉 복지 38곳은 비용 31% 줄이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석탄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부채 감축안이 사실상 퇴짜를 맞았다. 이들 기관은 다음달 말까지 보완 대책을 내야 한다.

정부는 2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중점관리대상 기관의 부채감축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계획대로라면 부채가 많은 18개 공공기관은 2017년까지 사업조정, 자산 매각, 경영 효율화 등 자구 노력을 통해 42조원을 마련, 빚을 갚게 된다. 이들 기관의 부채 비율은 2012년 320%에서 259%로 낮아질 전망이다.

공공기관 부채의 83.6%를 차지하는 이들 기관의 부채 비율이 낮아지면 정부 관리 41개 기관의 부채비율도 191%로 줄어든다. 이 경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의 공공기관 정상화 목표(200%)를 초과 달성하게 된다.

이날 심의에서는 18개 부채 과다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와 가스공사, 석유공사, 도로공사 등 13개 기관의 부채 감축 계획은 합격점을 받았다.

그러나 LH 등 5개 기관은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계획이 미흡해 현 자구 계획을 우선 시행하되 관계 부처와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조건부 승인' 통보를 받았다.

정부는 LH에 민간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 철수, 사업 부문별 경쟁체계 도입 등의 보완책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또 수공에는 추가 자구 노력을, 철도와 철도시설에는 철도산업 발전 방향을 고려한 구조 개선 대책을, 석탄공사에는 타 기관과의 통폐합 등을 제안했다.

한편 복지가 지나치다고 판단된 한국거래소, 수출입은행, 마사회 등 38개 방만경영 공공기관은 연내 복리후생비를 31.3% 줄여 1인당 복리후생비를 평균 427만원에서 290만원으로 137만원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정상화 이행 실적을 오는 9월 말에 중간 평가하고, 부진하면 기관장 해임 건의 등 엄중 문책하고 내년 임금 동결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일제 만행 사진전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제 침략 만행 사진전을 찾은 시민들이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초공천 폐지 끝까지 관철 노력"

김한길·안철수 회담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27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문제와 관련해 회동을 가졌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약속 파기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관철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로 했다"라는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안 위원장은 "민주당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현명한 결단을 내놓으면 좋겠다"고 한 것에 대해 김 대표는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양측 대표는 이날 30여 분동안 공천 폐지 문제를 논의했다.

/조현정기자 jhj@

"이산가족 문제 3년 내 못풀면 답 없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7일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앞으로 5년 내에 풀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 조찬 강연'에서 "5년 내에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와 사회는 이산가족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통일 준비와 관련, "정부 차원으로만 놓고 봐도 이른바 인프라(기반)와 거버넌스(지배체계)가 구축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성세대가 우리 젊은 세대에게 통일 문제에 대해 고개를 돌리게 만들었다"며 "미래 세대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 것이야말로 어떤 통일 준비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정기자 jhj

뉴스&뉴스

문대성 논문표절 본조사도 확정

●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27일 새누리당 복당을 앞둔 무소속 문대성 의원의 박사 논문에 대해 본조사 결과 표절에 해당한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2012년 4·11 총선 당시 문 의원이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지자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했고, 그해 4월 예비조사 위원회는 표절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국 선교사 북한 억류 기자회견

● 한국인 선교사가 지난해 10월 북한에서 체포돼 현재 억류돼 있다며 27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정욱(Kim Jeong-uk)'이라는 이름의 한국인 선교사는 평양에서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반국가 범죄 혐의로 북한에 억류됐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죄한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에 선처를 호소했으며,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말했다.

살기좋은 공동주택 지원

서울시 동대문구가 쾌적한 주거환경 등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 총 2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이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50~7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자금집행 개선 31억 벌어

서울시 강남구는 지난해 자금 집행 방법만을 개선해 이자 수입으로 31억원을 벌어들였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먼저 구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조사한 후 각종 단체나 시설 등에 관행상 정기 집행하던 자금을 없앴다. 분기별로 선지급하던 인건비는 매월 지급하는 등 지급 시기에 맞춰 필요한 금액만 지급하도록 했다.

저소득층 전세융자 추천

서울시 중구는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과 주거 안정을 위해 관내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융자 추천을 실시한다.

추천 대상은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세입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받는 자다.





육·해·공사 졸업식 27일 오후 2시 서울 공릉동의 육사 화랑연병장에서 육군사관학교 제70기 졸업식이 열렸다. 198명의 졸업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 경남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해사 68기 졸업식에서 생도들이 황기철 해군참모총장과 악수하고 있다(가운데). 충북 청원군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2기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생도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오른쪽). /연합뉴스

황우석 박사 파면처분 정당

대법, "논문 조작 진실성 신뢰 해쳤다"

대법원이 '줄기세포 논문 조작' 논란을 일으킨 황우석 박사를 서울대가 파면 처분한 것은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또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27일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과학 논문은 데이터의 진실성을 외부에서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 다른 과학자들은 논문에 실린 데이터를 사실로 전제하고 후속연구를 진행하는 데 그 데이터 자체가 조작된 경우 후속 연구가 무산되는 등 과학계 전체가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논문조작의 주책임자인 황 박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황 박사를 엄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연구 기강 확립과 서울대는 물론 과학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이 지나쳤다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서울대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그해 11월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동물 복제 연구 등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사립사범대학장협회장 선출

성신여대(총장 심화진) 사범대학 교육학과 김경회 교수가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 2014년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1년이다.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는 전국 31개 사립사범대학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과정 개편, 양성 기능 특성화, 임용 문제 개선 등 사범대학 발전 방안을 모색·논의 하는 자율 협의체다.

조재진·현주엽 상가 관련 피소

전직 축구 국가대표 선수 조재진과 전 농구선수 현주엽이 수도권 별내신도시 상가 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사업 시행사 및 조합에 수십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소당했다.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기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상가 개발 시행 사업을 해온 D사 대표 김모씨 등이 조씨와 현씨를 업무상 배임 및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사건을 이첩받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소장 등에 따르면 고소인 김씨 등은 조씨와 현씨가 "주주 결의 없이 10억여 원 상당의 상가 조합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시행사와 상가 조합에 수십억원대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정기자 jhj@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영화감독 하길종 요절
1979년 2월 28일, 70년대 고뇌와 낭만의 청춘 영화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영화감독 하길종이 간암으로 38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 서울대 불문과 졸업 후 도미하여 UCLA 영화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귀국 후 '바보들의 행진' '병태와 영자' '속 별들의 고향' 등의 영화에서 젊은이들의 꿈과 사랑, 고뇌와 좌절을 사회비판적 내용에 녹여내 청년 문화의 기수로 떠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오른쪽 일곱째) 위원장이 27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권익위 국민신문고 대상 시상식

김태형씨 대통령 표창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7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에서 국회 김정훈 정무위원장을 포함한 수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기념식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국민신문고 대상 시상식에서는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반부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기관과 개인을 발굴해 포상한다.

이번에는 훈장 5명, 포장 5명 등 13개 단체와 104명 개인에게 정부 포상 총 60점, 위원장 표창 57점이 시상됐다.

'부패 방지'분야에서 녹조근정훈장을 받는 송태원(55) 대검찰청 서기관은 지난해 원전비리 사건,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수사 등에 연 230 명의 전문 수사관을 파견하여 비리 실태를 파헤치는 데 일조했다.

'권익 개선'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다음커뮤니케이션 김태형(39) 팀장은 2012년 7월부터 국민권익위와 함께 '온라인 정책 토론회'를 공동 기획해 '정부 3.0'시대에 걸맞은 온라인 정책토론을 진행하고 발전시키는 공을 세웠다.

초·중·고 月 사교육비 24만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23만9000원으로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교육부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초·중·고등학교의 학부모·학생 7만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사교육비·의식조사'의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학교급별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교가 23만2000원 ▲중학교 26만7000원 ▲고등학교는 22만3000원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초등학교는 5.9% 증가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3.3%, 0.4% 감소했다.

일반 교과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9만1000원으로 ▲영어(8만1000원) ▲수학(7만4000원) ▲국어(1만6000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영어(1.3%)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줄었다.

예체능 교과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음악 1만9000원 ▲체육 1만6000원 ▲미술 9000원 순으로 전년과 비교해 미술(28.6%)과 체육(14.3%)이 많이 늘었다. /윤다혜기자

죽음의 레이스 외제차 동호회원 25명 붙잡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시속 250㎞가 넘는 '죽음의 레이스'를 펼친 인터넷 외제차 동호회 회원 2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7일 김모(33)씨 등 25명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11시부터 약 4시간에 걸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 IC와 송추 IC 약 11㎞를 왕복하며 이 구간에 있는 사패산터널에서 '롤링'이라는 폭주 게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3~4명씩 그룹을 지어 시속 60㎞의 일정한 속도로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 시속 250㎞가 넘는 속도로 동시에 출발해 정해진 지점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다.

이 게임에는 람보르기니, 폴크스바겐 시로코, 벤츠 SLS 등 고급 외제차들이 동원됐다. /김민준기자



옹기 만들기 시연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4 내나라여행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옹기 제작 시연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수색~상암DMC 대규모 복합단지

서울시, 서북권 광역생활 거점으로 개발

서울 수색과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 사이의 철도부지 43만9000㎡에 백화점과 호텔 등을 갖춘 대규모 복합단지가 들어서고 상암DMC역은 서북권 광역 생활권의 중심 거점으로 개발된다.

27일 서울시가 내놓은 '수색역 일대 개발 가이드라인'은 상암 DMC와 수색역을 연계해 개발, DMC 도심의 활력이 수색지역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다. 통합 개발의 위험을 줄이고 사업 실현성 확보를 위해 ▲수색역 구역 ▲DMC역 구역 ▲차량기지 이전 구역 ▲유보지로 나눠 추진한다.

우선 수색역 구역 6만㎡ 부지는 DMC 종사자와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원스톱 복합서비스 공간'으로 조성된다. 백화점과 마트, 복합상영관, 전시시설, 호텔, 오피스가 들어선다. 수색과 상암을 연결하는 고가도로와 보행자도로를 설치하고, 수색로변에는 전면 광장이 마련된다.

3만6000㎡ 규모의 DMC역 구역은 상업 기능을 갖춘 광역 생활권 중심 거점으로 개발된다. 주변 DMC지역 상업시설을 고려해 복합쇼핑공간, 엔터테인먼트와 주민 편의시설이 확충되고 랜드마크 역할을 할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수색역과 DMC 사이의 차량기지 이전 구역 4만4000㎡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DMC의 디지털미디어 기능을 지원하는 창조 산업과 창업보육시설도 이곳에 둥지를 틀 예정이다. 서울시는 차량기지 이전 구역 안에 있는 수차고(차량수리공간)는 문화·공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의선, 공항철도, 지하철 6호선의 환승을 개선한 통합 환승공간을 마련해 현재 15분 이상 걸리는 환승시간을 8분 내외로 줄인다. 아울러 수색과 DMC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1곳 이상 확충하고, 상가시설과 연계되는 보행로가 조성된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종각~광화문역 지하보행로 기공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진동 중앙공원에서 열린 '종각역-광화문역 지하연결보행로 기공식'에서 참석자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주요대학 정시 합격선 하향

입시업체 이투스청솔 분석

사상 첫 수준별 수능 시행에 따른 안정 지원의 여파로 서울 주요대학교의 정시 합격선이 하향 평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업체인 이투스청솔은 2014학년도 서울대·연세대 등 서울지역 주요대 정시 합격선을 분석한 결과 전년도보다 점수가 대체로 떨어진 양상을 보였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대 인문계는 경영대 합격선이 538점(수능 표준점수 800점 환산 기준)으로 가장 높고 사회과학계열(537점), 소비자아동학부(536점) 등이 뒤를 이었다.

합격선이 가장 낮은 학과는 국어교육과(533점)였지만, 경영대와의 차이가 5점에 불과했다.

서울대 자연계는 ▲의예과 538점 ▲수리과학부 535점 ▲화학생물공학부 532점 ▲컴퓨터공학부 530점 등이었다.

의예과와 합격선이 가장 낮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523점)와의 차이는 15점으로 전년도 23점보다 크게 감소했다. /윤다혜기자 ydh@

성희롱 육군대령에 복무 부적합 판정

현역 육군 대령이 부하인 여군 부사관과 여성 군무원을 성희롱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불명예 전역을 해야 한다.

육군 관계자는 27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모 부대 소속 A 대령에 대해 부하 모욕과 품위유지 위반으로 지난달 16일 육군본부 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 대령은 지난해 7월 여성 군무원 B씨에게 근로계약 연장을 도와주겠다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 같은 시기 여군 부사관 2명에게도 장기 복무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군 당국은 A 대령에게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대령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말 수원지법에 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육군 관계자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보기 위해 A 대령의 전역 예정일을 5월 초로 정했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global

metro HongKong


惠州工潮學師上街

食菠菜反應快

人工淚液

metro Brazil


do que em Salvador

Curtir o Carnaval no Rio custa R$ 448 por dia para o turista

barato que um abadá para o Nana Banana, um dos mais conhecidos trios da capital baiana. A soma é de R$ 1,1 mil para o Rio e R$ 1,6 mil em Salvador.

mou que as reservas de ingressos de arquibancada para o Carnaval 2014 foi feita em 34 minutos. Ao todo, 28,4 mil bilhetes foram reservados. O pagamento será feito no sába-

카니발 즐기는데 하루 20만원

브라질에서 카니발을 즐기려면 얼마가 들까. 온라인 사이트가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의 3대 카니발로 꼽히는 리우데자네이루, 헤시피, 살바도르 세 개 지역 중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곳은 리우데자네이루인 것으로 드러났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카니발을 즐기기로 결심했다면 숙박비, 교통비, 식비를 포함해 하루 평균 448헤알(약 20만원)의 비용을 준비해야 한다.

metro Russia


В центре города появилось НЛО

UFO 연상 건물 지붕공사 '눈길'

최근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시에서 건설 중인 비즈니스센터의 지붕이 미확인 비행물체(UFO)를 연상시켜 화제다. 평범한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둥근 돔 모양의 지붕은 햇볕에 반사, 마치 도시 공중에 비행물체가 떠 있는 듯한 착시 효과를 일으킨다. 현재 건축 중인 이 건물은 네프스키 라투샤 복합센터로 몇 동의 비즈니스센터와 호텔, 시청부 청사가 들어설 예정이다.

metro France


mois, se bat pour sa vue

희귀암 갓난아기 시민들 도움 수술

프랑스 리옹에서 희귀암 판정을 받은 갓난아기가 많은 시민들의 도움으로 수술에 성공했다.

아기의 부모인 크리스토프(28)와 마리 테르모즈(31)는 지난해 6월, 한 달 반 된 갓난아이의 눈에서 이상한 것을 처음 발견했다.

아버지 크리스토프는 "어두운 복도에서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그때 눈에 언뜻 이상한 게 비쳤다. 다음날 밝은 곳에서 다시 보니 아무것도 없어서 안심했지만 그날 오후 또 다시 나타나 심상치 않은 일이라 느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젊은 부부는 파리의 대학병원까지 찾아갔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바로 희귀암인 '망막아종'이었던 것. 선고를 받은 후 아기는 네 차례 화학치료를 받아야 했고 오른쪽 안구를 적출해야만 했다. 현재 아이는 다른 한쪽의 안구도 적출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 크리스토프는 "종양을 줄이기 위해선 나와 아내가 온 평생을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부부는 빌뢰르반 지역에 위치한 한 단체를 통해 금전적 지원 및 도움을 받았다. 협회 회장인 장 마르크 로파는 "아이를 위해 얼마전 특별 바자회를 열었다. 이 행사를 통해 5500유로(약 808만원)가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불어 같은 병에 걸렸던 피에르프랑수아와 트리불랑은 아기의 대부가 돼 주기도 했다. 그는 "아기가 겪은 것처럼 나도 똑같이 모든 아픔을 가지고 있다. 1982년 내가 태어난 지 세 달 만에 망막아종 진단을 받았다. 힘들었지만 나는 이걸 이겨내고 곧 있으면 아빠도 된다. 이 아이도 암을 이겨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피에르 알렉상드르 브방 기자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변신은 자유…화물차가 별장으로

中 충칭서 여행마니아 4총사 멋진 캠핑카 만들어 화제



최근 중국 충칭시의 한 농가에서 화물차가 '별장'으로 변하는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다. 평범한 화물차의 세 면에서 방 한 칸씩을 꺼내니 멋진 이동식 숙소가 탄생했다.

이 비상한 캠핑카의 주인은 추융, 머우쿤, 양정훙과 양차오융 등 네 사람이다. 친구인 이들은 여행 마니아다. '사총사'는 유명한 관광지를 다니면서 사람이 너무 많고 숙박비가 비싸다고 느꼈다.

추융은 지난해 국경절에 싼야로 여행을 갔을 때 평상시 몇백 위안이던 숙소가 하룻밤에 최고 4500위안(약 80만원)까지 올라서 지불하기가 아까웠던 기억을 떠올리고, 캠핑카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 계획을 친구들에게 얘기하자 모두 관심을 보였다. 네 사람은 곧바로 돈을 모아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는 추융이 설계와 인테리어를 맡았다. 추융은 "모두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켜야 했다. 의견 제시는 '주주'들의 권리"라고 말하며 웃었다.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좋은 부엌 시설을 갖췄고 노래방을 좋아하는 친구를 위해 스피커를 추가했다. 또 축구 경기 시청을 좋아하는 친구를 위해 위성 수신기도 배치했다.

추융은 보름 뒤 설계를 최종 확정했다. 이후 사총사와 가족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해 차량을 구매했다. 인테리어 시공에 또 한 달가량이 걸렸다.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지난 10일 드디어 캠핑카가 완성됐다.

화물차 칸의 세 면에서 컨테이너 박스 같은 칸을 하나씩 꺼내면 총 면적 24㎡의 별장이 완성된다. 내부는 화려하진 않지만 따뜻하고 실용적이다. 싱크대 수도꼭지에서는 온수가 콸콸 나온다. 주방과 욕실이 마련돼 있으며 노래방과 마작을 즐길 수도 있다. 공기 주입식 소파와 접이식 소파도 세 개씩 있어 밤에 열두 가족이 자기에 충분하다. 차량 구입비와 내부 장식, 가구, 가전제품, 각종 시설을 포함해 총 27만 위안(약 4750만원)이 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차는 모두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양정훙은 "이제 차가 완성됐으니 네 가족이 함께 놀러 갈 일만 남았다. 12명이 묵을 수는 있지만 다 타고 갈 수는 없어서 7인승 승합차도 한 대 마련했다"며 활짝 웃었다. /정리=조선미기자

market index <27일>

코스피	1978.43 (+7.66)	코스닥	528.37 (−0.86)
금리(국고채 3년)	2.85 (−0.01)	환율(원·달러)	1068.70 (+2.20)

기업들, 취업공백 긴 구직자 꺼린다

신입직으로 취업하려면 취업 공백기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216개사를 대상으로 '신입 채용 시 취업 공백기 평가' 주제로 설문한 결과, 52.8%가 '공백기가 긴 지원자를 꺼리는 편'이라고 답했다. 공백기가 길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졸업 후 '1년'이 46.5%, '6개월'(18.4%), '1년6개월'(11.4%), '2년'(10.5%), '3개월 이하'(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꺼리는 이유로는 '도전정신, 적극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38.6%, 복수 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취업 목표가 불확실한 것 같아서'(33.3%), '결격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31.6%) 등이 뒤를 이었다. /이국명기자

뉴스&뉴스



"알뜰폰 전용 온라인몰 엽니다"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은 알뜰폰 전용 온라인 쇼핑몰 '티플러스몰'을 오픈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오픈하는 티플러스몰은 ▲알뜰폰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쉽고 빠른 상품 및 요금제 검색 ▲간편한 가입 절차 등이 특징이다. /한국케이블텔레콤 제공

월 근로시간 174.6시간 임금상승률의 2배 증가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근로시간 증가율이 임금 상승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4.6시간으로 8.2시간(4.9%)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12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354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4000원(2.1%)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편 제조업 상용직과 건설업 임시·일용직 근로자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종사자 수 증가폭이 전년 동월 대비 20만 명을 웃돌았다. /이국명기자

경상수지 24개월 흑자 행진

●지난달 경상수지가 2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다만 흑자 규모는 계절적 요인으로 전달보다 감소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1월 국제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1월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12월(64억1000만 달러)보다 줄어든 36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한은 관계자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든 것은 계절적 요인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민지기자

SK 오너 형제 실형…재계도 충격

'횡령' 최태원 회장-최재원 부회장 상고심서 각각 징역 4년·3년6월 확정

SK그룹이 충격에 빠졌다. 최태원 SK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27일 열린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재계 오너가의 형제가 모두 실형을 받은 것은 사상 초유로, 향후 그룹 경영상에서 장기간 공백이 우려된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4년을,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도 원심처럼 징역 3년6월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혼란 빠진 SK…"너무 가혹하다"

SK그룹은 이날 최종 판결 이후 혼란에 빠지게 됐다. 내부적으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의 사례처럼 파기환송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최태원·최재원 형제 중 한 명이라도 실형을 면할 것이라는 낙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 바 있다.

그러나 두 형제가 모두 실형을 받게 돼 향후 정치적 사면 등 감형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상당 기간 경영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SK그룹은 이에 따라 김창근 의장이 주재하는 SK 수펙스 추구 협의회를 통한 비상경영 체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도 협의회 주재로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고, 향후 그룹 경영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SK그룹은 6개 위원회를 중심으로 '따로 또 같이 3.0' 체제를 도입하고, 계열사별 자율 경영을 해왔다.

그러나 오너가 없는 상황에서 신성장 산업 발굴이나 대규모의 투자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그간 중국 사업에 '올인'하다시피 하며 글로벌 사업을 진행해온 상황에서 해외에서의 투자를 결정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SK 관계자는 "국내 10대 그룹 총수 중 실형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침통한 상황이다. 오너가 없는 상황에서 신성장 산업 발굴이나 글로벌 분야에서 큰 투자를 결정하기도 어렵고, 보수적으로 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과 관련,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동정론이 감지되고 있다. 한마디로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너무하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이 재판 과정에서 상당 기간 구속 상태였고,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우처럼 파기환송을 통해 집행유예 정도로 끝낼 수도 있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태균기자 ksgit@metroseoul.co.kr



"웰컴, 외국인" 코스피 올들어 최고점 27일 코스피가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사흘째 상승, 1978.43으로 장을 마감해 올해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27일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외환딜러들이 거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봄날 온다"

BSI 5개월만에 100 상회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서 3월 종합경기 전망치가 기준선 100을 넘어서며 경기 활성화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3월 종합경기 전망치는 104.4로 5개월 만에 기준선 100을 상회했다. 이는 고용·생산 등 국내 경기지표 호전, 미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이후 신흥국과의 차별성,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립에 따른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용옥 경제정책팀장은 "고용·생산 등 거시경제 지표가 완만한 회복 조짐을 보임에 따라 경기 회복에 대한 기업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며 "테이퍼링으로 인한 신흥국 불안 요소들이 상존하는 만큼 경기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돼 경제 활성화의 모멘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탁기자 kimdt@

삼성 전 계열사 정년 60세로 연장

다음달부터 55세 기준 임금피크제도 실행

삼성이 다음달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각사 노사협의회를 통해 기존 만 55세이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고, 만 55세 기준으로 전년의 임금 10%씩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를 실행하기로 합의했다. 학자금, 의료비 지원 등 복리후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에버랜드 등 전 계열사가 다음달부터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계열사별로 구체적인 시기, 조건 등은 별도 노사협의를 거친 후 임직원들에게 최종 확정안을 공지할 계획이다.

다른 기업들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법'에 따라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과 달리 삼성은 2년 앞서 정년 연장에 나서게 됐다. 이처럼 삼성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은 법 적용 제외자인 1959년생과 1960년생 임직원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삼성은 통상임금 판결에 맞춰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올해 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도 합의를 마쳤다.

기본급은 1.9% 인상하기로 했다. 연차와 개인성과 등 호봉승급분을 포함하면 실제 인상률은 평균 4.4% 수준이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작년 인상률인 5.5%보다 낮은 이유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편 비연봉제 직원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연봉제 직원은 월급여 가운데 전환금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민 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나의 금융브랜드 신한금융그룹

따뜻한 금융

신한은행의 따뜻한 금융은

금융에

진심을 담아

고객을 위하고

금융에

책임감을 더해

사회를 위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늘 함께 크고

늘 함께 웃는

세상과 금융의

아름다운 상생입니다

손에 손잡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따뜻한 금융이 되겠습니다

-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해 희망을 더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에 힘이 되겠습니다
- 소비자 보호에 더욱 노력해 고객만족을 높이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수익형 부동산, 호텔리어 '콜'

분양형 호텔·서비스드 레지던스 투자 뜨면서 전문운영사 위탁·호텔 근무 경력자 채용 붐

오피스텔을 대신해 최근 분양형 호텔이나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새로운 수익형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떠오르면서 다양한 '운영 관리' 노하우가 눈길을 끈다. 숙박객 유치, 건물 관리 등 운영사별 능력에 따라 이들 부동산의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운영 관리'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호텔 객실을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개인이 분양받은 뒤 운영은 전문 운영사에 위탁해 수익을 거두는 분양형 호텔, 서비스드 레지던스 등의 영향이다.

대표적인 운영 관리 방식은 3가지다. 호텔 운영 경험이 많은 전문 운영사를 두거나, 시행사가 운영 법인을 만들어 관리를 하거나, 시행사 자체에서 운영하는 경우다. 시행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호텔 근무 경력자를 채용하기도 한다.

전문 운영사가 운영을 맡고 있는 곳으로는 제주시 연동의 '제주 센트럴시티 호텔'이 있다. 위탁 운영사는 제주 특1급 호텔인 '그랜드호텔'이다. 이 호텔은 지난 1981년 문을 열고 총 512개의 객실과 카지노·연회장·사우나·피트니스시설을 갖춘 곳으로, 현재도 영업 중이다.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서 분양 중인 '가온 하이츠빌' 오피스텔은 시행사에서 '가온 비즈니스 호텔'이라는 위탁 운영사를 만들었다. 위탁수수료 절감에 따른 수익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서는 호텔 근무 경력이 있는 매니저를 채용한 상태다.

제주시 함덕리에서 선보인 '코업시티호텔'은 코업관리서비스에서 운영을 맡았다. 코업은 대한민국 대표 서비스드 레지던스 브랜드로, 현재도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호텔과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공급해 운영 중이다.

이외 JK메디컬그룹이 제주시 연동에 분양한 'JK 라마다 앙코르 제주 호텔'은 시행사인 JK그룹이 자체적으로 호텔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한류충전소 "맥주 시음하고 가실게요" 창조관광공모전 수상 기업인 '한류충전소'가 27일 코엑스에서 열린 '내나라 여행 박람회'에 참가해 맥주 시음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트북 고장 줄이려면 '물 조심'

짠순이 주부 경제학

직업이 기자라 노트북은 '나의 애장품 1호'가 된 지 오래다. 매일 들여다보고, 가방 속에 고이 모셔둬도 잔고장 앞에선 장사가 없다. 노트북, 잔고장 없이 제 수명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노트북 액정 화면과 물은 '상극'이다. 액정 화면에 먼지가 잔뜩 앉았다고 휴지에 물을 묻혀 함부로 닦으면 흡집 투성이가 된다. 액정 화면을 닦을 때는 PC용 클리너를 사용하는 게 좋다. 여의치 않다면 부드러운 천 조각에 물을 약간 묻혀서 수평 방향으로 닦아낸다.

노트북의 하드디스크는 충격에 무척 약하다. 때문에 하드디스크가 작업 중일 때는 노트북을 이동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음료수나 커피를 키보드에 쏟게 되면 노트북을 못 쓰게 된다. 노트북은 액체와 완전 상극이란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 주위에 액체가 있으면 무조건 치워두는 게 상책!

노트북 고장 중 빈도가 높은 것이 바로 전원이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어댑터를 이용할 땐 주변에 물이 있는 곳에 놓아두면 합선될 위험이 있다. 선은 너무 꼬이지 않도록 한다. 한쪽 부분이 계속 꼬이면 선이 내부에서 끊어져 충전이 안 될 수 있다. 전원은 먼저 노트북에 어댑터를 연결한 다음 꽂아야 과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트북 등록번호는 미리 적어두는 것이 기본이다. 등록번호는 분실 신고를 할 때 필수이기 때문. 등록번호가 대부분 노트북 아래쪽에 있는데, 그럴 때는 투명 테이프를 붙여 지워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좋다.

/김민지기자 minji@



"나만의 가구, 뚝딱 만들어요" 27일 서울 이마트 성수점에서 모델들이 나만의 가구를 설계할 수 있는 조합형 가구 '스마트 키트'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은퇴 후 삶 준비, 공적 자금으론 한계"

글로벌 금융교육 심포지엄

국내외 은퇴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공적자금 부족은 전 세계적인 공통 현상이라며 장년층 노동을 활성화하고 금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금융 교육 관련 국제기구인 INFE와 공동으로 26~27일 이틀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글로벌 금융교육 심포지엄'에는 37개국, 150여 명의 금융 교육 전문가가 참여해 은퇴 후 삶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논의했다.

최순영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국내 은퇴 후 65~70세 인구 중에서 4명 중 1명이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60세 이상 고용률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는 등 은퇴 후 재취업 문제가 주요하게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질랜드 금융이해력 및 은퇴 수입 위원회의 다이앤 맥스웰 위원은 "뉴질랜드 역시 65세 이후에 일하는 사람이 많다"며 "취업 연령이 늦춰지면서 고령까지 일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도 30세에 첫 취업하는 인구가 늘면서 충분한 은퇴자금을 모으기 위한 노동 기간이 예전보다 단축됐다.

최 박사는 "금융위기 이후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남성과 여성의 첫 취직 연령이 각각 33세, 28세로 집계됐다"며 "은퇴까지 평균 33~35년 일하던 이전 세대에 비해 현 젊은층은 30년 정도밖에 일하지 못할 뿐더러 평균 수명은 70세에서 80세로 늘어 은퇴자금 마련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의 수잔 캠벨 선임 매니저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호주도 퇴직제도만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기 어렵다"며 "금융 교육으로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장기 저축과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LTE속도戰, KT 최고… 해외서도 인정

'8로8로팔로미' '잘생겼다LTE-A' '3배 빠른 광대역 LT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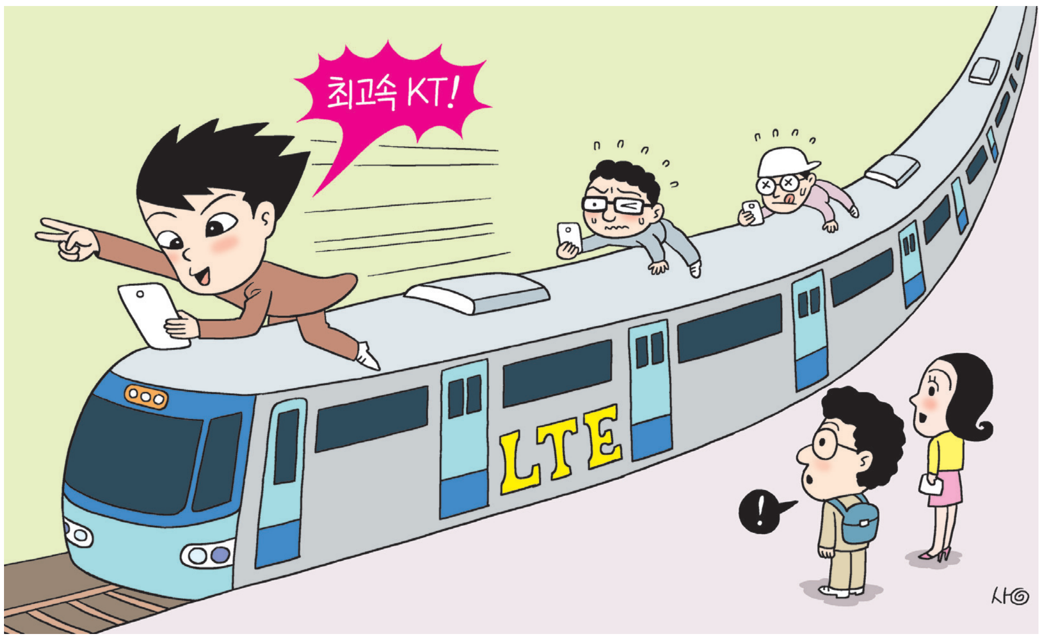
최근 이동사들의 LTE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고객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과장해 현혹하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이다. 광고만으로는 어떤 통신사가 가자 믿을만한 품질의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판가름 하기 어렵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대중교통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하철에서 LTE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업계에 따르면 주말을 제외한 2월을 기준으로 출근 시간(오전 8시)대 서울 지역 지하철에서 발생한 LTE 트래픽 비중은 같은 시간 서울 전역에서 발생한 LTE 트래픽의 30%에 달한다.

이중 유튜브·모바일IPTV 등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사용량은 60%로, 콘텐츠 서비스 사용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일 시간대에 많은 사용자가 밀도있게 모여 고용량 콘텐츠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하철의 LTE 품질이 고객 체감 품질에 중요하게 작용하며, 이동통신 3사의 LTE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본지는 이동통신사들이 고객에게 강조하는 만큼 최상의 LTE서비스를 제공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 대학생 3명을 선발해 출퇴근 인구가 많은 지하철 4·5호선 현장에서 직접 LTE 품질을 측정했다.



지하철 4·5호선 이통 3사 속도 비교 결과 'KT>SKT>LGU+'



4·5호선11 구간에 걸쳐 이동통신 3사가 각각 출시한 '갤럭시 S4'로 측정을 진행했고, 구간별로 LTE 속도 측정 어플리케이션인 벤치비를 통해 3회 이상 속도 측정을 진행했다.

4호선 측정 결과 이동통신 3사의 평균 속도는 KT 82Mbps, SK텔레콤67Mbps, LG유플러스34Mbps 순으로 나왔다. 성신여대~노원 구간에서 LTE 속도는 SK텔레콤 71Mbps, KT 93Mbps, LG유플러스39Mbps로 측정됐고, 사당~이촌 구간에서는 SK텔레콤63Mbps, KT 79Mbps, LG유플러스 28Mbps로 나타났다.

5호선의 경우 KT 100Mbps, SK텔레콤 81Mbps, 44Mbps 순으로 나타났다. 신길~공덕 구간에서는 SK텔레콤 83Mbps, KT 77Mbps, LG유플러스 31Mbps로 나타났고 군자~천호 구간에서는 SK텔레콤 73Mbps, KT 96Mbps, LG유플러스 53Mbps로 측정됐다.

전체적으로 KT가 LG유플러스보다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5호선 김포공항~까치한, 까치산~신길 구간에서는 각각 SK텔레콤 100Mbps, KT 130Mbps, 42Mbps 및 SK텔레콤 75Mbps, KT 105Mbps, LG유플러스 32Mbps로 나왔다. KT와 LG유플러스의 속도 차이가 무려 3배 정도 차이가 났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최초의 첨단 통신기술을 다른 통신사보다 빠르게 개발하는 것과 함께 최대한 많은 고객에게 '지금 되는 광대역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는 국내 조사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27일 영국 무선 네트워크 시장조사기관인 오픈시그널이 발표한 '2014년도 LTE 품질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KT는 다운로드 속도 21.3Mbps를 기록하며 전세계 통신사업자 중 6위, 국내 통신사 중 1위에 올랐다. 이번 보고서는 16개국 40개 통신사업자 600만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만들어졌으며, 국내에선 이번 평가대상에 KT와 SK텔레콤 단 2개 사업자만 포함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LTE 커버리지 당 접속 지속율은 91%로, 글로벌에서 가장 뛰어난 품질을 보였다. LTE 다운로드 속도는 평균 18.6Mbps로 세계 8위를 기록했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LTE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최근 국내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광대역 LTE나 LTE-A 등을 비교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LTE 관련 서비스는 한 단계 높은 성능을 보인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3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서도 광대역 LTE의 내려 받는 속도가 일반적인 LTE보다 1.8배 빠르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KT와 SK텔레콤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콩그레스(MWC) 2014'에서도 광대역 LTE와 LTE-A를 앞세워 '최고의 LTE 공헌상'을 수상하는 등 앞선 LTE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은 "이번 평가결과는 KT의 LTE 기술력은 국내에서뿐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보다 빠른 속도와 넓은 커버리지 등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사례"라며 "사실상 속도경쟁에서 경쟁사보다 확실히 빠른 통신사업자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ksgit@metroseoul.co.kr



미니 화분 받으세요 27일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백화점 리빙관 모던하우스 매장에서 여성 고객들이 미니 화초를 고르고 있다. 아이파크백화점에서 다음달 2일까지 5만원 이상 상품을 구매한 직장인이 명함이나 사원증을 제시하면 1층 사은행사장에서 미니 화초를 받아갈 수 있다. /현대아이파크몰 제공

기아차 쏘렌토 "눈 성형했네"

헤드램프 날렵해진 후속모델 포착… 세련미 가득

올 하반기에 등장할 기아차 쏘렌토 후속 모델이 스칸디나비아반도에서 카메라에 포착됐다.

위장막으로 철저히 가려진 이 차는 최근 기아차의 K7(수출명 카덴자)·K9(수출명 K900)의 패밀리룩을 이어받았다. 또한 헤드램프는 좀 더 날렵해졌고, 사이드 캐릭터 라인은 위쪽으로 올라갔다. 덕분에 전체적으로 세련된 이미지를 풍긴다.

휠베이스(앞뒤 바퀴 축간 거리)는 구형보다 길어졌는데, 늘어난 길이의 대부분은 2열과 3열 시트 공간을 늘리는 데 활용됐다.

북미형 모델의 파워트레인은 직렬 4기통 2.4ℓ와 V6 3.3ℓ 등 2가지 배기량의 가솔린 엔진이 주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엔진이 아니라 기존 엔진의 출력과 연비를 개선하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주목할 점은 현대·기아차 최초로 SUV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한다는 점이다. 2.4ℓ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가 조합돼 연비와 파워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효과를 노렸고, 여기에 47kW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장착해 모터의 활용 범위를 충분히 확보했다. 배터리는 K7 하이브리드와 마찬가지로 LG화학 제품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는 올 하반기에 국내에 쏘렌토 후속 모델을 내놓고 본격 시판에 나선다. 국내에서는 2.0ℓ와 2.2ℓ 디젤 엔진이 주력이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북미 시장에 먼저 내놓은 뒤에 내수용으로 선보일 전망이다.

/임의택기자 ferrari5@



스마트 마이스 박람회… 제주-스위스 화상회의도 선명 27일 롯데시티호텔 제주에서 개막한 '스마트 마이스 위크 2014' 박람회에서 국제회의기획협회인 MPI의 루드 얀센 전 네덜란드 회장이 스위스 현지와 화상 연결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커브드UHD TV·4G폰으로 中 공략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가전 시장인 중국에서 커브드 UHD TV와 4세대(4G) 이동통신 시대를 주도하며 높은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포부를 밝혔다.

삼성전자는 2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개최한 올해 마지막 삼성포럼 행사에서 커브드 UHD TV, 갤럭시 S5, 기어2·핏, 프리미엄 가전을 비롯한 혁신 제품과 기업 간 거래(B2B) 솔루션을 모두 선보였다.

윤부근 대표는 이날 포럼 연사로 나서 중국 시장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윤 대표는 "7개 연구소와 디자인센터, PIT, LRL의 연구원을 비롯해 6만 명에 이르는 중국 삼성전자 직원이 현지에 최적화한 혁신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땀 흘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중국 시장에서 지난해 총 판매액이 80%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전략으로 ▲커브드 UHD TV 시장 개척 ▲4G 시장 선도 ▲프리미엄 가전 시장 공략 ▲중국 사회 일원으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제시했다.

박재순 중국총괄 부사장은 "세계 최초 커브드 UHD TV를 폭넓게 선보이며 'TV의 커브드 시대'를 열고, 중국 현지 기업과 맞춤형 UHD 콘텐츠 제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갤럭시S5와 새로운 웨어러블 기기 기어2·핏, 프로 시리즈 태블릿과 함께 전혀 다른 모바일 경험을 제공하겠다"며 "세계 롱텀에볼루션(LTE) 시장에서 쌓은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올해 급성장할 전망인 중국 4G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균기자 ksgit@

합법 보조금 늘어날수도

단말기 유통법 국회 통과시 통신시장 어떻게 바뀌나… 정찰제 정착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또다시 파행됐다. 이로 인해 전날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사실상 통과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번엔 방송사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발목을 잡았다. 전날 법안소위에서 방송법 개정안 내용에 합의했던 새누리당은 민간방송까지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며 뒤늦게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로 인해 여야간 진통을 겪으며 이날 예정된 법안소위가 열리지 못했다. 다만 국회 본회의가 28일로 하루 연기되면서 여야간 막판 합의를 통해 단말기 유통법을 비롯해 계류 중인 법안 처리 여지는 남아있다.

여야간 극적인 합의로 단말기 유통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차별금지 ▲보조금 공시 ▲이용자의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보장 ▲보조금과 연계한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제조사 장려금 조사대상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제조사와 이동통신 사업자는 장려금과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면서 사실상 단말기의 가격 정찰제가 이뤄진다. 결국 소비자는 어느 휴대전화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가도 누구나 비슷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는 것이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국회 통과가 28일 여야간 극적 합의를 통해 이뤄지면 건전한 통신시장 조성, 가계통신비 인하 등에 기여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그렇다고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 이하의 보조금 지급은 가능하다. 방통위는 최근 단말기 유통법 통과 시 이 같은 보조금 가이드라인의 상한선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히려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되면 투명한 가격 경쟁 아래 보조금 지급률을 높여 소비자들이 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단말기 구입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심산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수차례 기자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당시 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단말기 유통법이 보조금을 없애는 것이라는 편견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법 시행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차츰 (단말기 유통법이)자리를 잡으면 제조사·이통사 간 투명한 보조금·장려금을 기본으로 단말기 출고가도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말기 유통법 통과 시 이통3사도 보조금 경쟁 자체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줄여들어 수익률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211대란, 226대란 등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통신 시장이 혼탁한 상황에서 이통3사는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되면 이 같은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이통3사의 마케팅비는 8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뇌파 읽는 컴퓨터… 생각만으로 작동

세계경제포럼이 선정한 '미래 바꿀 10개 신기술'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하고 SF영화 '스타워즈'(사진) 등에서 봤던 홀로그램 기술이 현실로 등장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이같이 미래를 바꿀 10개 새로운 기술을 선정해 2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인체에서 발견되는 미생물을 이용한 새로운 암 치료법, 바닷물에서 금속 추출 등의 기술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의 틀과 자본 투자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가장 첫 번째로 소개된 신기술은 생각만으로 조작되는 컴퓨터 인터페이스다. 뇌파 활동을 관찰해 이를 표현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하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면 서 장애인들이 생각만으로 휠체어를 움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바닷물 담수화 과정에서 금속 추출 기술이 두 번째로 소개됐다. 소금물에서 금속을 추출할 수 있는 새로운 화학적 처리 공정이 등장함에 따라 대량으로 바닷물을 담수화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초경량 자동차가 세 번째다. 탄소섬유로 만든 자동차는 기존 모델보다 40% 이상 가볍고 강하고, 쉽게 재생할 수 있으며 에너지 소비도 대폭 절감된다.

네 번째는 그리드 방식 에너지 저장 기술이다. 태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잉여 에너지를 저장할 전기 그리드 방식이 곧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스크린이 필요 없는 3차원 디스플레이도 눈에 띈다. 3차원(D)의 이미지가 공간으로 튀어나오는 디스플레이로 기존 2D 이미지 디스플레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이미지 자체도 실제 현실과 아주 유사하게 된다.

이 밖에 입는 전자제품, 나노와이어 리튬이온배터리, 인체 미생물 치료법, RNA 기초 치료법, 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예측 모델 이용 등이 미래를 바꿀 10대 신기술에 꼽혔다.

/이국명기자 kmlee@

‘독립운동의 산실’ 동화약품 “다시보자”

3·1절 맞아 주목받아… 일제강점기 활명수 판매액 독립운동 자금 지원 등 앞장

올해로 95주년인 삼일절을 맞아 국내 최장수 제약기업인 동화약품이 주목받고 있다. 동화약품은 국내 최초의 등록 상품인 ‘활명수’를 비롯해 최초의 등록상표 ‘부채표’, 국내 최초의 제조회사 및 제약회사까지 4개 부문에서 기네스북에 올라있으며, 국내 최장수 상장기업으로서 최고(最古) 타이틀만 5개를 가진 유서 깊은 기업이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 있던 일제강점기에도 동화약품은 나라를 위한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 활명수의 판매 금액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지원했으며, 임시정부와 국내외의 연락을 담당하는 ‘서울 연통부’를 운영했다. 3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해 조국의 광복에 앞장서기도 했다.

◆임시정부 ‘서울 연통부’ 운영

동화약품 사옥에는 이런 서울 연통부를 기리는 기념비가 있다. 서울 연통부는 3·1 운동 직후에 체계화된 독립운동을 위해 수립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국내와의 연락을 위해 만들어진 지하 비밀 단체다. 서울 연통부의 당시 행정 책임자는 동화약품(동화약방)의 사장인 민강 선생이 맡았다.

서울 연통부는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자금 마련에도 한몫을 담당했다. 당시 활명수 한 병 값은 50전으로 설렁탕 두 그릇에 막걸리 한 말을 살 수 있는 비싼 가격이었다. 독립운동가들은 중국으로 건너갈 때 돈 대신 활명수를 휴대했다가 현지에서 비싸게 팔아 자금을 마련했다고 전해진다.

서울 연통부는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항일 의거 유적지로 선정돼 기념비 건립이 확정됐다.

◆3명의 독립운동가 배출

동화약품은 3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명실상부한 민족 기업이기도 하다. 창업주 민강 선생을 포함해 현대화의 기틀을 마련한 5대 사장인 보당 윤창식 선생, 윤광열 명예회장이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동화약품의 초대 사장인 민강(1883~1931년) 선생은 조국 광복을 위해 힘쓰고, 2세 교육에 힘쓴 것으로 유명하다. 1909년 청년들을 중심으로 대동청년당을 결성해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나섰으며, 소의학교(현 동성중·고교), 조선약학교(현 서울대 약대) 설립에도 앞장섰다.

독립운동으로 인해 사세가 기울어 경영이 어려워진 동화약품의 뜻을 이어받은 5대 보당 윤창식(1890~1963년) 사장 역시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 높은 인품, 경영인이 지녀야 할 능력까지 갖춘 윤 사장은 1915년 서울의 지식 청년들 130여 명이 중심이 돼 경제 자립을 통한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조선산직장려계’를 결성했다. 1917년 조직이 경찰에 적발돼 옥고를 치른 후에도 빈민계층을 도왔던 ‘보린회’ 사업에 깊이 참여해 1920년부터 1959년까지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연통부 기념비. /동화약품 제공

6대 윤광열(1924~2010년) 명예회장 역시 광복군으로 활동했다.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학교) 재학 시절 자발적으로 중국 상하이에 있는 정부군을 찾아가 주호지대 광복군 5중대 중대장직을 맡았다.

조선시대 말기, 일제강점기, 한국전쟁과 분단 등 격동의 현대사를 넘어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화약품이 한결같은 사랑을 받은 것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족과 건강을 지키는 국내 최장수 기업으로서의 사명감이 국내에서 전무한 일업백년(一業百年) 기업을 만드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희귀질환 환자 돕기 ‘착한 걸음’ 캠페인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희귀질환 사업 부문인 젠자임 코리아가 ‘제7회 세계 희귀질환의 날’(2월 28일)을 맞아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투병하는 희귀질환 환자 가족을 돕기 위해 ‘착한 걸음 6분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희귀질환 환자들의 보행 능력을 측정해 질환의 개선 정도를 확인하는 ‘6분 걷기 검사’에서 착안해 기획됐으며 캠페인에는 임직원 264명이 참여해 총 1100만원의 기부금을 마련했다. 기부금은 헌터증후군 환자 가족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젠자임 코리아 제공

75세까지 암 보장 가입 가능해요

AIG 부모님 암보험

암 발병률은 노년기에 접어들며 급격히 증가한다.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10년 기준 65세 이상 암환자는 10만 명당 1559명이다. 35~64세의 489명보다 3배 이상 많다. 1995~2011년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12만6592명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60대가 31.4%, 여성은 50대가 23.8%로 가장 많았다. 전체 암환자의 15%는 70~80대였다. 암환자의 진단 연령이 높아진 것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암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노년층의 암 발생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정작 암보험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년층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내 암보험 가입률은 2009년 말 기준 56.4% 수준이며 연령별로 보면 65세 미만은 62.2%에 이르지만 65세 이상은 8.2%에 불과하다.



최근에 ‘AIG 부모님암보험’으로 노년 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주목받고 있다. 30~75세면 암 보장 가입이 가능하고, 암 진단비와 함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과 같은 3대 큰 병을 선택계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암으로 인해 사망하면 2000만원을 보장해주고, 암 수술비 또한 100만원을 지급해주니 든든하다.

/박정원기자 pjw89@

폴얀센 장학기금 대학생 봉사단 발대

한국얀센은 27일 본사에서 ‘폴얀센 장학기금 대학생 자원봉사단 3기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사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폴얀센 장학기금은 얀센의 창립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폴 얀센’ 박사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한국얀센은 부모 중 1명이라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충분한 정신적 교감과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 2012년 사회복지재단 ‘아이들과 미래’와 함께 폴얀센 장학기금을 마련했다.

자원봉사단 3기는 총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아이들과 미래가 소개하는 멘티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멘토링 활동을 하게 된다.

또 한국얀센은 자원봉사단이 대학생인 점을 고려해 이들을 위한 취업 멘토링 강연을 진행했으며 자원봉사단 2기 대학생들을 초청해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자원봉사단 3기로 활동을 시작하는 이화여대 경제학과 3학년 김하영양은 “한국얀센처럼 좋은 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아직 밝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황재용기자

뉴스&뉴스

건대병원서 힐링콘서트

●**올림푸스한국**이 최근 건국대병원 로비에서 ‘2014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다. 힐링 콘서트는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올림푸스의 기업 정신을 바탕으로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에는 국내 최초 발달장애 청소년 오케스트라인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단원 중 클라리넷 연주자들로 구성된 ‘하트 클라리넷 앙상블’이 참여했다.

서울대 약대에 5억 기부

●**광동제약**이 서울대 약대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억원을 기부했다. 이 기금은 서울대 약대의 시설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제반 활동에 지원되면서 가산 약학역사관을 건립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가산 약학역사관은 우리나라의 약학 역사를 기념하는 장소로 반세기 외길 제약 인생으로 정도 경영을 실천한 광동제약 설립자 고 가산 최수부 회장의 아호를 따 명명됐다.

'학교의 추억' 모바일 게임 속으로



학교를 다시 다니고 싶은 사람을 위한 모바일게임이 등장한다.

CJ E&M 넷마블은 모바일 소셜네트워크게임(SNG) '학교2014:반갑다, 친구야! for Kakao'의 비공개테스트(CBT) 참가자 모집을 27일 오후 4시부터 시작한다.

아기자기한 그래픽이 인상적인 '학교2014:반갑다, 친구야!'는 '라쿤슬라이스' '터트리고' 등의 모바일게임으로 잘 알려진 라쿤소프트의 신작으로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세계 3대 게임쇼 E3에서 소개됐다.

학교에 입학해 만나게 된 친구들, 선생님들과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게임으로 한 편의 만화 같은 이야기와 방대한 즐길거리, 다채로운 소셜 콘텐츠 등이 특징이다.

이번 테스트는 3월 중 진행될 예정으로 참여를 원하는 이용자들은 CBT 이벤트 페이지(enjoy.netmarble.net/_event/myschool/2014/0213)에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와 사용 중인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박성훈기자



SKT 광대역 LTE, 전국 광역시로 확대 SK텔레콤 직원들이 LTE 서비스를 점검하고 있다. SKT는 다음달 1일부터 광대역 LTE 서비스 적용 범위를 전국 광역시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SKT 제공

'팡야' 그랑프리 모드 공개



온라인 골프 게임 '팡야'가 대규모 콘텐츠 '그랑프리 모드'를 공개했다.

엔트리브소프트는 자사가 개발 및 서비스하는 팡야에 그랑프리 모드 콘텐츠를 업데이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모드는 시간대별로 자동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날씨와 상황별 다른 규칙과 다양한 난이도가 적용되는 신규 대회 모드다.

이와 함께 팡야는 신규 스크래치 아이템으로 '2013 레어박스'를 출시한다. 이는 지난 한 해 선보인 모든 스크래치 희귀 아이템이 나오는 박스로 각 캐릭터별 총 11종이 무작위로 구성된다.

엔트리브소프트 김홍석 팡야 개발실장은 "그랑프리 모드는 매일 다른 환경과 규칙을 제공하는 이벤트로 이용자들에게 매일 색다른 팡야를 만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파스타 집 경영 사장님 줄 섰네

파티게임즈 '…파스타' 사전예약 15만 돌파



토종 소셜네트워크게임(SNG)의 대표 브랜드인 '아이러브커피'가 파스타 메뉴를 개발했다.

'아이러브커피' 제작사인 파티게임즈는 27일 후속작 '아이러브파스타 for Kakao'를 공개하고 3월 초 출시를 예고했다. 신작은 파스타를 소재로 나만의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경영시뮬레이션 SNG다.

출시 전부터 카카오스토리, 공식 페이스북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얻었으며 사전 예약 6일 만에 예약자 수가 15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 게임을 총괄하고 있는 이은재 PD는 "이전 회사 퇴사 직후 파리 센강의 노천 식당에서 커피와 파스타를 먹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며 커피의 후속으로 파스타를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아이러브파스타는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옮겨놓은 듯한 게임 속 배경(선착장, 운하, 가게 뒤편 거리 등) ▲게임 속 주요 건물(2층 테라스) ▲게임 시스템(파스타 면 생산, 파스타 재료 구하기, 서빙하기 등)이 특징이며, 20~30대 여성을 타깃으로 한다.

기존 소셜게임에서 볼 수 없었던 게임 시스템도 공개됐다. 일명 '게임 속 게임'으로 새로운 파스타 메뉴를 요리할 때 ▲같은 재료 짝 찾기 게임 ▲요리 재료의 프라이팬 터치 게임 ▲신속한 서빙 리듬게임 등으로 신메뉴를 서비스하는 방식이다.

이대형 파티게임즈 대표는 "아이러브커피 특유의 게임성은 더욱 계승 발전시켰고 그래픽 퀄리티는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파스타를 즐기는 젊은 여성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넥슨·네오위즈 DNA 둘 다 품은 다크호스

양사 경험한 박진환 대표 배급사 네오 아레나 설립



넥슨과 네오위즈게임즈의 DNA를 물려받은 신생 기업 '네오아레나'가 올해 게임 업계 다크호스로 떠오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네오아레나는 네오위즈게임즈 대표와 넥슨 포털본부장을 역임한 박진환(43·**사진**) 현 대표가 통신장비기업 티모이엔엠을 지난해 9월 인수하면서 탄생된 게임 배급사(퍼블리셔)다. 박 대표는 온라인 게임 '크로스파이어' '스페셜포스' '피파온라인' 등을 흥행시키며 숱한 업계 기록을 세운 바 있다.

박 대표는 사명을 네오아레나로 변경한 뒤 게임 사업부를 신설하고 네오위즈게임즈 등에서 근무한 박정필 전 에스지인터넷 대표 등 베테랑을 영입하며 본격적인 게임 시장 진출을 준비했다.

최근 열린 창립 첫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표는 "게임 시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배급 문제 등을 네오아레나가 개선하고자 한다"면서 "우리 회사는 후발 주자이지만 열린 사업 구조와 상생을 강조하는 경영 정책으로 성과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중독법 등의 규제 정책, 온라인게임 침체 등 우리나라 게임업계는 혹한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미국 라이엇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가 80주 넘게 국내시장 점유율 40%를 보이는 등 외산 게임의 벽을 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어려운 게임 환경이지만 네오아레나는 신작 게임 10종으로 야심차게 출사표를 던진다. 교육퍼즐게임 '퀴즐', 하이브리드 RPG '베나토르', 3D RPG '이스트 온라인' 등 10종의 신작 출시가 확정된 상태며 향후 자체 개발 또는 외부 배급을 통해 출시작을 늘릴 계획이다.

신생 게임 개발업체를 위한 모바일게임 서버 엔진도 선보인다. 네오아레나는 모바일게임 개발 플랫폼 '푸나피'와 '아구스(가칭)'를 내놓을 예정이다. 두 플랫폼은 개발 기간과 투입 인력을 단축시키면서 안정적인 서버 운영을 가능케 한다.

박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을 했는데 답은 역시 게임이었다"면서 "네오아레나를 단순한 퍼블리셔가 아닌 개발사, 마케터, 투자자 등의 역할을 아우르는 도전적인 기업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장윤희기자 unique@

블소 '지옥도' 업데이트 휴면고객 복귀 프로모션



엔씨소프트의 인기 MMORPG '블레이드 & 소울'(이하 '블소')이 '시즌2: 지옥도' 업데이트를 맞아 휴면 고객 복귀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휴면 이용자 복귀 및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를 지원하는 2가지 이벤트로 구성돼 3월 26일까지 진행된다.

먼저 블소의 유명 NPC(Non-player Character)인 포화란이 등장하는 '포화란의 금의환향 초대장' 이벤트에 모든 고객이 참여할 수 있다.

블소 홈페이지에서 '포화란과 충각단'을 연재한 웹툰작가 빈유의 새 작품을 감상한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추천이벤트를 진행한 유저에게는 경품을 제공한다. 복귀 지원 보급품(잠긴 해적무기, 외형 변경 이용권 등)을 지급한다.

내 콩팥 나이는 몇살일까

다음달 13일 이대병원서 신장학회 공개강좌

대한신장학회는 '세계 콩팥의 날'을 맞아 3월 13일 오후 2시부터 이대목동병원 김옥길홀에서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건강강좌는 대한신장학회가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해 콩팥병의 예방과 관리 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세계 콩팥의 날 행사의 주제는 '콩팥도 당신과 함께 나이가 듭니다'다. 대한신장학회에서는 '건강한 콩팥을 만드는 당신의 삶. 당신의 콩팥 나이 알고 계신가요?'라는 슬로건으로 콩팥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진행한다.

건강 강좌에서는 ▲콩팥병이란 무엇인가?(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 ▲당뇨병 및 고혈압과 만성 콩팥병(조영일 건국의대 신장내과 교수) ▲만성 콩팥병의 치료(박태진 아산진내과 원장) ▲노인의 만성 콩팥병(강덕희 이화의대 신장내과 교수) 등의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모든 참석자에게는 우산을 제공하며 추첨을 통해 혈압측정기, 디지털 체중계, 가정용 구급함 등의 경품이 지급된다.

한진석 대한신장학회 이사장은 "콩팥 질환의 중요성을 알리고 평생의 동반자인 콩팥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덕희 대한신장학회 홍보이사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 최근 콩팥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개최되는 공개강좌는 일반 국민들에게 콩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 콩팥의 날은 세계신장학회와 국제신장재단연맹이 콩팥 질환에 대한 예방과 교육 및 홍보를 위해 3월 둘째주 목요일을 기념일로 정했다. 한국과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 50여 나라에서 매년 건강강좌와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김학철기자



TV 밖으로 나온 홈쇼핑…GS샵 오프라인 리빙 컬렉션 GS샵이 27일 서울 신사동 호림 아트센터에서 홈쇼핑 업계 최초로 오프라인 리빙 컬렉션을 개최했다. 행사장을 방문한 고객들이 리빙 상품의 최신 트렌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GS샵 제공




응답했다, 압력솥의 추억

최근 소비시장 복고 바람…LP판도 다시 돌아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새로운 제품들 사이에서 유유히 자기 영역을 지키거나 다시금 부활한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인기를 끈 tvN의 '응답하라 1994'와 '응답하라 1997' 바람을 타고 90년대 먹거리·패션·음악 등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주방용품부터 전자제품까지 제각각의 '넘사벽'(넘을 수 없는 벽) 매력으로 잊힌 줄 알았지만 요즘 대세가 된 제품도 있다.

◆쫀득쫀득 차진 밥맛은 포기 못 해

워킹맘 정가람(35)씨는 최근 주방 수납장에 넣어뒀던 압력솥을 다시 꺼내 쓰고 있다. 사실 전기밥솥을 구매한 후 압력솥은 잘 안 쓰게 됐는데 친구의 추천으로 다시 사용하고 보니 취사 시간이 3분의 1 이하로 줄었다. 게다가 압력밥솥 특유의 쫀득쫀득한 차진 밥맛을 구현할 수 있어 요즘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압력솥 예찬론을 펴고 있다. 게다가 밥뿐만 아니라 찜·탕·면요리 등 압력솥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요리법들이 소개되고 있어 가족들의 건강한 밥상이 더욱 푸짐해졌다.

압력솥 브랜드 PN풍년 관계자는 "압력솥을 잊힌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고 맛과 향을 그대로 보존하는 등 압력솥만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매해 수요량이 늘고 있다"며 "2009년 370억원이던 압력솥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470억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PN풍년 대표 스테디셀러 압력솥인 블랙펄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총 41만 대가 판매됐고 2013년 디자인과 안전 기능을 새롭게 리뉴얼한 '블랙펄네오'(사진 왼쪽)를 출시하기도 했다.

◆라이브 숨결 살아있는 LP판 부활

LP판의 화려한 부활이 거세지고 있다. 한동안 잊혔던 LP가 음악을 소장하고 간직하려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다시금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매료시키고 있다.

최근 26년 만에 LP로 재탄생한 유재하의 1집부터 지난해에는 '가왕' 조용필이 19집 앨범 '헬로(Hello)'를 발매하며 한정판 LP버전을 제작·판매했다. LP는 젊은 가수들에게도 주목받고 있다. 브라운아이드소울, 장기하뿐만 아니라 2AM 등 아이돌 가수도 LP 음반을 내놓았으며 특히 지드래곤의 LP 음반은 하루 만에 8000장이 완판될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이에 힘입어 오디오 브랜드에서도 다시 LP 플레이어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21세기형 턴테이블(Turn Table)이라고 불리는 인켈의 'PM-9907U'는 기존 LP 플레이어들이 손으로 톤암(Tone Arm)을 움직여야 하는 수동 방식이었던 데 비해 자동 재생이 가능하며 MP3 파일 변환 및 USB 리코딩 기능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국내 업체에서도 최근 스테레오 스피커와 FM라디오 튜너가 탑재된 복고풍 디자인의 LP 턴테이블을 출시했다.

스카이디지탈의 '아리아 팬 FM 턴테이블'(오른쪽)은 복고풍의 아날로그 다이얼과 체리 원목의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신혼 분위기 살리는 감성 가전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뉴스&뉴스

CJ제일제당 베트남 공장 첫삽



● CJ제일제당은 27일 베트남 남부 붕따우성 산업단지에서 제분공장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 참석한 CJ제일제당 김철하(왼쪽 둘째) 대표이사를 비롯해 스미토모 생활산업&미디어 대표 신이치 사사키(가운데), 오재혁 베트남 총영사(오른쪽 둘째) 등이 첫 삽을 뜨고 있다.

한촌설렁탕 '뮤지컬 표' 경품

● '한촌설렁탕'은 3월 문화 이벤트로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친절 직원에게 칭찬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뮤지컬 그리스' 초대권을 선물로 증정한다.

싱글족의 외식 '1인 메뉴' 뜬다

TGIF·엔제리너스 판매 롯데리아엔 바 테이블

1인 가구와 나홀로 소비족이 늘어나면서 외식업계가 1인 메뉴를 운영·개발하는 등 '1인 고객 맞춤 마케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T·G·I 프라이데이스는 싱글족을 위한 1인 메뉴 '심플 밀'을 선보였다.

심플 밀은 메인 요리인 스테이크와 샐러드·사이드 메뉴를 한 접시에 담아 레스토랑의 코스 형태의 요리를 간편화해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1인 메뉴다. 레스토랑이 높은 가격으로 인해 한 끼용으로 부담돼 혼자서 가기 어려운 대표적인 외식업종임을 고려해 1인 고객 증가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이다.



커피전문점 엔제리너스 커피 역시 1인 고객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2분의 1 사이즈로 줄인 브레드(사진)를 판매 중이다. 실제로 엔제리너스 커피는 1인용 하프 브레드를 판매하면서부터 전년 대비 1인 고객의 수가 20%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메뉴가 아닌 인테리어 구성에 변화를 두는 마케팅을 사용하는 업체도 있다. 롯데리아는 지난해 2월 매장 인테리어에 바 테이블을 적용해 1인 고객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바꿨다. 바 테이블에는 콘센트가 있어 식사뿐만 아니라 직장인과 대학생들의 업무 및 모임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정혜인기자

맥도날드 '에그 포테이토 랩' 먹고 행복한 아침

맥도날드는 고소하고 든든한 신제품 '에그 포테이토 랩(Egg Potato Wrap)'을 출시하고, 1000원에서 2000원의 가격에 즐길 수 있는 '행복의 나라 메뉴(Happy Value Menu)'의 아침 메뉴로도 선보인다.

에그 포테이토 랩은 신선한 계란과 든든한 해쉬 브라운, 고소한 치즈를 담백한 토르티야에 감싼 제품으로 1500원에 판매되며, 아침 시간대인 새벽 4시에서 오전 10시30분까지 판매한다.

기존에 포함돼 있던 버거·디저트·음료 메뉴 외에 에그 포테이토 랩까지 행복의 나라 메뉴로 추가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부담 없는 가격에 다양한 맥도날드 인기 메뉴를 즐길 수 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봄날 맛집 테이블 '그린 라이트'를 켜줘

외식 체인점들, 샐러드 등 푸른 색감의 저칼로리 메뉴로 입맛 유혹

최근 봄을 앞둔 외식업계에서는 '그린 라이트(Green Light)' 푸드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그린 라이트 푸드는 샐러드나 녹차의 푸른 색감으로 산뜻하게 입맛을 돋우고, 칼로리를 낮춰 부담 없이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메뉴를 말한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건강과 힐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린 라이트 푸드로 봄맞이 심신을 가꾸려는 소비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봄이라면 신선한 샐러드를 놓칠 수 없다. 한국 피자헛의 패스트&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 피자헛 키친은 신선한 샐러드와 담백한 치즈로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샐러드 피자(사진)로 젊은 여성 고객들을 유혹한다.

CJ푸드빌의 계절 밥상은 봄을 알리는 제철 재료인 민들레·세발나물·봄동 등으로 만든 신메뉴 14종을 출시했다. 민들레로 만든 면, 민들레 잎과 국화 꽃잎을 넣은 '민들레 국수무침', 민들레로 은은하게 우려낸 '민들레차'는 입안 가득 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메뉴다.

BHC는 신선한 샐러드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치킨 메뉴인 '프리미엄 텐더 요레요레'를 선보였다. 닭의 황금 부위 속 안심살을 사용해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고, 바삭한 감자칩과 신선한 샐러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칼로리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맛과 영양은 살린 라이트 메뉴가 봄 맞이 여성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는 이탈리아 전통 치즈로 맛은 살리고 부담은 줄인 '고르곤졸라 월넛 치킨 샐러드'로 여심을 자극한다. 치즈와 함께 호두·크랜베리·토마토가 토핑된 샐러드 메뉴로 선보여 다이어트식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맛과 영양을 고려했다.

BBQ는 탕수육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올리브치킨 통가슴살 탕수육'을 내놨다. 지방 함유량이 적고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닭가슴살을 통째로 사용해 칼로리에 대한 부담을 낮췄다. 부드럽고 촉촉한 맛 때문에 웰빙 스타일로 즐길 수 있다.

동원F&B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이 적어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연어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동원연어'를 최근 출시했다. 시중 연어 캔 중 유일하게 고급 어종인 '코호(Choh) 연어'를 사용해 부드러운 육질을 맛볼 수 있다.

대상 청정원은 칼로리가 낮고 트랜스지방이 전혀 없어 야식으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뷰티칼로리면 프레시' 온탕면을 새롭게 출시했다. 곤약면을 사용해 칼로리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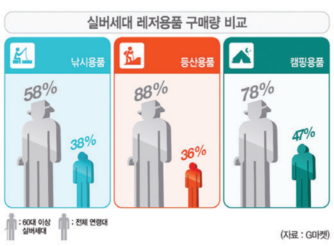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실버세대, 레저시장 '덥석'

60대 이상 구입량 74%↑ 20~30대 증가율의 2배

고령자 세대인 이른바 '뉴실버세대'가 레저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하고 있다.

27일 G마켓에 따르면 지난해 60대 이상 고객의 레저용품 구입량이 전년 대비 7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20대와 30대 구입량이 각각 20%, 35%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전체 연령대 증가율도 42%인 것을 감안하면 60대 이상 고객의 구매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셈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레저용품에서 차지하는 60대 이상 고객의 구매 비중도 2012년 8% 수준에서 2013년 10%로 2%포인트 증가했다.

레저 활동 종류별로 보면 같은 기간 60대 이상 실버족의 낚시용품 구입량은 전년 대비 58%증가했다. 등산용품도 88%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연령대에서는 낚시용품 38%, 등산용품 36% 판매가 증가했다.

특이한 점은 캠핑용품 판매가 전체적으로 47% 늘어난 가운데, 60대 이상의 캠핑용품 구입량은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홈플러스 생필품 1000종 일년 내내 가격 인하 삼겹살과 한우·채소 가격 연중 최저가를 선언한 홈플러스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000여 종 생필품 가격을 1년 내내 5~62% 인하한다. 이번 가격 인하는 연간 200억원가량의 자체 마진을 줄여 전개하는 대규모 연중상시저가(EDLP·Every Day Low Price) 프로젝트다. /홈플러스 제공

외식 브랜드들 "베스트 메뉴만 모아모아!"

패키지 출시 트렌드로

최근 외식업체들이 자사의 베스트 메뉴들을 모아 한 패키지로 출시해 소비자들의 입맛 잡기에 나섰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네네치킨'은 소치 올림픽을 기념해 네네치킨의 베스트 메뉴 '쇼킹핫 양념치킨'과 '치즈 스노윙 치킨'의 첫자를 딴 '쇼치세트'를 선보였다. 매콤한 치킨과 고소한 치즈를 얹은 치킨에 달콤한 고구마와 치즈의 궁합이 일품인 '네네스위틱'(사진)과 콜라를 함께 구성했다.



패밀리 레스토랑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도 한국 진출 17주년을 맞아 '최고의 반반 메뉴'를 한정 판매한다. 이 메뉴는 갈릭 립아이, 투움바 파스타, 오지치즈 후라이즈 등 아웃백 베스트셀러 메뉴를 다양하게 조합했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는 이 메뉴를 주문 시 고르곤졸라 크러스트와 쿠카부라윙을 반반씩 구성한 애피타이저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족발 전문점 '더 놀부족발 화덕구이'는 고객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만든 '스페셜 세트메뉴'를 내놨다. 어른들이 좋아하는 화덕족발과 막국수, 짬뽕탕과 여성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화덕피자로 구성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네네치킨의 관계자는 "베스트셀러로 구성된 패키지는 비교적 메뉴 개발이 쉽고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출시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중화동남아여행업협회와 코레일관광개발 업무협약

코레일관광개발은 지난 21일 중화동남아여행업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철도 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관광 상품 촉진을 위해 공동으로 상품을 개발·홍보해 중화·동남아권 관광객에게 한국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코레일관광개발은 테마열차와 테마파크, 철도 관광 인프라를 제공하며 중화동남아여행업협회는 상품 개발과 중화·동남아권 관광객에 대한 관광 상품 판매 촉진 및 모객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맥심 화이트골드 경품 행사

동서식품이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2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전국 할인점 및 대형마트에서 맥심 화이트골드 구매객을 대상으로 한 '화이트데이엔 맥심 화이트골드'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제품 구매 후 온라인 구매 인증 또는 할인점 현장 이벤트에 참여하면 푸짐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또 할인점에서는 구매객에게 즉석 스크래치 추첨을 통해 맥심 화이트골드 선물세트를 총 6400명에게 증정할 예정이다.



www.imtcast.com
때론 달콤하게 -
때론 상쾌하게 -
때론 유쾌하게 -
t나게 tv보자!
눈으로 즐기는 T-time t.cast
FX
SCREEN
FOX
DRAMA cube
CHAMP
FASHION N
view
CINE f
FOXlife
E channel
E channel
t.cast
최강 컨텐츠 리딩 그룹!
[드라마에서 영화, 애니메이션까지… Tcast는 남녀노소 모두를 만족시키는 수준 높은 컨텐츠를 공급하는 10개의 채널을 보유한 컨텐츠 미디어 그룹입니다.]
E channel SCREEN DRAMAcube view FASHION N CINE f CHAMP FOX FOXlife FX



파스텔 컬러 물든 봄구두 27일 서울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에서 모델들이 새롭게 출시된 봄 구두를 선보이고 있다. 올해는 파스텔 등 단색 컬러가 강세로 단화와 통굽 형태 구두가 유행할 전망이다. /현대백화점 제공

그녀의 귓가 '센스 반짝'

예비 여대생·신입사원 액세서리 멋내기 요령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취업, 입학 시즌이다. 올해 새내기가 되는 예비 여대생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사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패션'이다. 하지만 무작정 새 옷을 구매하기란 쉽지 않다. 이럴 땐 액세서리로 포인트 주는 것이 정답이다.

새내기들은 봄에 어울리는 비비드한 컬러의 비즈 주얼리를 활용하는 게 좋다.

컬러 주얼리는 새내기 여대생의 산뜻한 분위기를 최대한 살려준다. 편안한 티셔츠나 귀여운 원피스 어떤 스타일과도 어울리고 시계, 가죽, 체인 소재 등의 액세서리들과도 믹스매치하기 손쉽다.

한 가지 아이템이지만 분리해서도 착용 가능한 투인원(2-In-1) 귀고리의 경우는 한 쌍만으로도 그날의 기분과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어 실용적이다.

학생 신분을 벗어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사원들에게는 차분하면서도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액세서리를 고르는 것을 추천한다. 골드·실버 등 클래식한 컬러에 트렌디한 디자인을 선택하면 단순한 옷차림도 세련된 룩으로 변신한다.

덴마크 주얼리 브랜드 필그림 관계자는 "신입사원은 깔끔한 블라우스에 청키한 체인 소재의 팔찌·목걸이나 엔티크한 디자인에 다양한 장식들이 어우러진 액세서리를 포인트 아이템으로 착용하라"고 조언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봄 오니까…아웃도어 매출 급증

이달 들어 30% 늘어나 미세먼지 차단제품도↑



패션 쇼핑몰 아이스타일24는 본격 나들이철인 봄을 앞두고 이달 아웃도어 관련 매출이 전월에 비해 30% 상승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최근 한 주 마스크·스카프·선글라스 등 패션 액세서리의 판매 증가율이 각각 40%, 44%, 22%나 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평소보다 4~5배 높고 그 영역이 전국에 걸쳐있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여기에 봄철 황사까지 겹쳐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아이템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마스크 전체 판매율 중 87%가 유아동 카테고리에서 판매됐는데, 이는 어린이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에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업체 측은 분석했다.

강재구 아이스타일24 제화·잡화 담당 상품기획자(MD)는 "올해는 예년에 비해 날씨가 따뜻해 많은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즐기고 있다"며 "미세먼지가 심한 상황이라 호흡기, 피부, 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패션아이템을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학철기자

모공 속 미세먼지 '후~' 날려다오

각종 피부 트러블의 원인 저자극 클렌징 제품 도움



최근 중국발 초미세먼지로 클렌징 제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금속 성분을 함유한 초미세먼지는 모공보다 작아 깨끗하게 닦아내지 않으면 피부 속으로 침투, 여드름·아토피 등 각종 트러블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참존화장품 관계자는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클렌징 제품의 매출이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특히 식물성 성분을 함유한 저자극 아이템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참존화장품의 '징코 내추럴 클린싱 라인'은 은행잎 추출물 등 각종 식물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 노폐물을 부드럽게 제거한다. 특히 폼 타입의 '참존 징코 내추럴 폼 클린싱 크림'은 미세하고 촉촉한 거품으로 세안 후에도 피부가 땅기지 않는다.

뉴트로지나는 멜베리 성분을 담은 '딥클린 브라이트닝 멜베리 울트라 폼 클렌저'로 인기몰이 중이다. 펌프를 누르면 바로 나오는 풍성한 거품이 메이크업 잔여물을 말끔히 씻어낸다. 상큼한 멜베리 향은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든다.

클렌징에 신경을 쓰는 남성들이 늘어나면서 남성 전용 클렌저도 주목을 받고 있다. 남성 스킨케어 브랜드 니베아 포맨은 '니베아 포맨 오일 컨트롤 훼이셜 폼'으로 남심을 사로잡았다. 유분기를 조절하는 백차 추출물과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알로에 베라 등을 함유해 클렌징은 물론 모공 축소, 피지 관리까지 한번에 해결해준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발 부위별 충격 흡수하는 등산화

노스페이스 '다이나믹EX'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는 초경량 등산화 '다이나믹 EX'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업계 최초로 부위별로 충격을 흡수하는 '에어볼 시스템'을 적용해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발의 아치 형태와 발가락의 곡선 라인을 고려한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착화감이 뛰어나다. 가격은 24만원.

이와 함께 바람막이 재킷인 '다이나믹 드라이 재킷'도 선보였다. '하이벤트 3D' 원단으로 만들어 방수, 방풍, 투습 기능을 끌어올렸다. 안감 표면의 미세한 요철 구조를 만들어 재킷 내부의 통기성을 높이고, 땀에 젖었을 때도 피부에 달라붙지 않게 했다. 가격은 21만원.

/박지원기자

SPA 에잇세컨즈·슈즈 탐스, 코엑스몰 상륙

다음달 1일 나란히 오픈



최근 '핫'한 패션 브랜드들이 '젊음의 메카' 코엑스몰에 잇따라 입점한다. 코엑스는 분당·서초·잠실 고객을 아우르는 것은 물론 유동인구가 강남역 상권과 맞먹을 정도로 많아 패션 사업의 전략적 요충지로 알려져 있다.

삼성에버랜드 패션 부문의 SPA 브랜드 에잇세컨즈는 다음달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 1층 입구(밀레니엄 광장)에 1188㎡ 규모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코엑스몰 플래그십 스토어는 에잇세컨즈가 올해 새로 여는 첫 매장이자 통산 26번째 매장이다. 회사 측은 이 매장을 남성·여성·액세서리 등 모든 아이템을 총망라한 토털 패션숍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오픈 당일 방문 고객에게는 전문 포토그래퍼가 사진 촬영을 해준다.

슈즈 브랜드 탐스(TOMS)도 코엑스몰에 첫 번째 단독 매장을 오픈한다.

3월 1일 정식으로 문을 여는 탐스 코엑스점은 '경험 스토어'를 테마로 탐스의 기부 정신인 '원 포 원'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매장 방문 고객에게 꽃을 선물하고, 제품 구매 고객에게는 탐스 로고 모양의 떡과 팔찌 등을 증정한다. /박지원기자

metro entertainment E

치과의사·작곡가·가수… 그녀의 '3중생활'



바비킴의 '영원한 너를'등 지금까지 많은 곡 썼어요
⋮
중 3때 팔목 안 다쳤다면 아마 음악인 되었을겁니다 '아이콜 잇 러브' 희망 노래

작곡 서바이벌 '슈퍼히트' 우승 김홍일 미니앨범 발표

작곡가 오디션 프로그램인 엠넷 '슈퍼히트'에서 우승한 김홍일이 자신의 이름을 건 미니앨범 '아이 콜 잇 러브'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슈퍼히트' 우승자 김홍일은 남다른 외모와 기존 참가자와 달리 자신만의 음악적인 색깔을 담아낸 작곡 능력으로 대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작곡가를 희망하는 치과의사라고만 하기에는 그의 능력은 수준급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우연 아닌 준비된 작곡가

치과의사를 겸하고 있는 김홍일은 이미 음악 업계에서는 프로로 인정받는 작곡가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단번에 작곡가가 된 것은 아니다. 다섯 살 때부터 중학교 3학년 팔목을 다치기 전까지 피아노를 배우며 음악인의 꿈을 키워왔다.



"팔목을 다치지않았다면 음악인으로 활동하고있었을 거예요. 연세대 치과대 재학시절 음악 동아리 소나기의 건반 멤버로 활동하기도 했죠.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매일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어요."

1990년대 초반부터 자신의 곡을 제작사에 판매할 정도로 음악에 대한 열정은 뜨겁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MBC 드라마 '불의 여신 정이'의 타이틀 송 바비킴의 '영원히 너를'과 백아연의 '눈물도 사랑인걸'의 작곡가도 바로 김홍일이다.

그는 "새로운 곡을 쓰고 작업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현재 작곡한 곡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번 앨범은 수백 개의 곡 중에서 겨울에 나오면 좋을 것 같은 곡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 남다른 가요계 인맥

지난달 발매한 앨범 '아이 콜 잇 러브'는 김홍일의 작곡을 필두로 이은미의 '애인있어요'를 작사한 최은하, 나얼의 '바람기억'을 편곡한 강화성이 참여했다. 감성 보컬 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의 목소리가 더해져 한층 깊은 애절함을 담아냈다.

"박용인군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됐어요. 음악을 잘하는 작곡가 겸 가수였고 그들의 음악 중 '똑같은 사랑 똑같은 이별'이란 곡에서 박용인의 보이스에 매력을 느꼈어요. 내가 작업한 곡과 잘 맞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가창 제안을 했고 박용인군은 흔쾌히 허락해줬어요."

베테랑 작곡가 윤일상은 후속곡 '당신을 사랑합니다'의 편곡을 맡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프로그램을 같이해서 더 친해지기도 했지만 윤일상씨를 알고 지낸 지 수년이 됐어요. 교회 모임에서 처음 만났죠. 한참 음악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류이치 사카모토를 그 친구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됐죠."

◆"음악에 희망을 담고 싶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면서자신의 앨범을 발매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앨범 제작비용은 물론 유통 자체가 힘들어 특정한 상위 1% 곡들만 판매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음악 시장의 음원 유통 절차가 복잡한 것도 문제다.

그는 "수많은 작곡가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앨범을 발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데 유통 자체가 힘들어 발매한 음악이 조용히 사라지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희생을 감내하며 앨범을 발매하는 이유는 바로 '희망'때문이다.

"앨범을 발매하고 힘들어서 길을 걷고 있는데 길에서 할머니가 조그만 광주리를 놓고 물건을 판매하는 모습을 봤어요. 힘들 텐데 뒤편에 있는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힘을 얻는 모습을 봤죠. 힘든 사람들이 노래를 듣고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요."

음악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김홍일, 2014년 그의 다음 도전은 어떤 것이 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디자인/박은지





역시 소시… 과연 2NE1

신곡 대결서 소녀시대 음원차트 휩쓸어… 2NE1 전곡 줄세우기 '막상막하'

국민 걸그룹 소녀시대(사진 왼쪽)와 2NE1(오른쪽)이 같은 시기에 컴백을 선언함에 따라 가요계에 불꽃 튀는 맞대결이 시작됐다.

서로 추구하는 색깔은 다르지만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룹인 만큼 소녀시대와 2NE1이 펼칠 선의의 경쟁에 국내외 팬은 물론 가요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대결의 시작은 소녀시대다. 소녀시대는 24일 미니 4집 '미스터미스터'의 수록곡 6곡 전곡을 전 세계에 공개하며 공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명실상부 톱 걸그룹답게 소녀시대 음원은 공개 직후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다. 타이틀곡 '미스터미스터'가 각종 음원차트 1위를 석권한 것은 물론 수록곡 '굿바이' '백허그' '웨이트 어 미닛' 등 전곡이 차트 상위권에 랭크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싱가포르와 베트남·태국 등 3개 국가에서는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소녀시대는 본격 컴백을 앞두고 뮤직비디오 일부 데이터가 손실되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지만 음원만으로 음원차트 상위권을 장악하며 톱 클래스임을 입증했다.

소녀시대의 컴백으로 달아오른 가요계 열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2NE1이다.

2NE1이 27일 정규 2집 '크러시'를 공개했다. 음원 공개와 함께 타이틀곡 '컴백홈'은 10개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를 점령하며 소녀시대와 본격 경쟁에 나섰다.

특히 2NE1은 음원차트에서 올킬 파워와 전곡 줄세우기를 선보이는 등 최근 가요계에 보기 드문 성적으로 음원 강자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더블 타이틀곡 '너 아님 안돼' 이외에도 씨엘이 이번 새 앨범에 작사·작곡으로 참여한 트랙 '크러시' '살아 봤으면 해' '베이비 아이 미스 유'와 씨엘 솔로곡 '멘붕' 등 트랙리스트의 대부분이 음원차트 톱 10에 진입했다.

소녀시대와 2NE1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함에 따라 이들이 무대 위에서 선보일 퍼포먼스와 음악의 향연을 보는 즐거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제2의 전성기 맞은 전지현

'별그대' 인기에 국내외서 러브콜 쏟아져

톱스타 전지현(사진)이 14년 만의 안방극장 복귀작인 SBS 수목극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로 대박을 치며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별그대'가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자 여주인공인 톱스타 천송이를 열연한 전지현에게 국내외에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

소속사 관계자는 27일 메트로신문에 "중화권에서 이전부터 영화 '엽기적인 그녀'로 인해 인기가 높았는데 '별그대' 출연 후 영화·드라마·광고·화보에 대한 문의와 제안을 더 많이 받고 있다. 국내보다 해외 반응이 더 뜨겁다"고 밝혔다.

이어 "제안받은 중국 영화와 드라마 중에는 유명 감독들의 작품이 많다"면서 "신작 '암살' 촬영이 가을에 시작될 예정이라 그 전까지 여유가 있어 중국 영화 출연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중국 광고 역시 예전엔 주로 화장품 쪽만 들어왔다면 지금은 음료·의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들어와 현지에서 높아진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도 '별그대' 출연 후 한 의류 브랜드 광고모델에 강동원과 함께 발탁되는 등 결혼 전과 비교해 더욱 높아진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 관계자는 "결혼 후 마음이 안정된 데다 영화 '도둑들' '베를린'에 이어 '별그대'의 성공이 맞물려 결혼 전보다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몇 달간 강행군을 펼친 전지현은 당분간 밀린 광고 촬영 일정을 소화한 후 약해진 체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탁진현기자



'참 좋은 시절' 사투리 논란은 촬영지 바뀐 탓

경남 산청→경북 경주 변경



김희선·이서진 주연의 KBS2 주말극 '참 좋은 시절'(사진) 측이 사투리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제작진은 27일 메트로신문에 "원래 극의 배경은 경남 산청이었다. 이경희 작가가 자신의 고향인 경남 쪽을 배경으로 해서 대본을 썼다"면서 "사투리 논란은 제작진이 산청보다 풍광이 좋은 경북 경주로 촬영장을 바꿔서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전개에 대해 "일단 당장 사투리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며 논란 속에서도 지금의 사투리를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2회까지 방영된 이 드라마는 경주를 배경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김희선을 비롯해 등장하는 연기자들의 대사가 경남 사투리로 구성돼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톱스타들의 출연과 이경희 작가의 주말극 참여로 방영 전부터 화제를 모은 이 드라마는 시청률이 첫 회 만에 20%, 2회 만에 30%를 넘어 '국민 드라마'급 인기를 예고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

동방신기, 한편의 뮤지컬 같은 무대

'수리수리' 퍼포먼스에 세계적 안무팀 내피탭스 참가

'퍼포먼스의 제왕' 동방신기(사진)가 세계적인 안무가와 손잡고 환상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27일 신곡 '수리수리'를 발표한 동방신기는 마돈나·크리스티나 아길레라·제니퍼 로페즈 등 유명 팝스타와 작업한 세계적인 안무팀 내피탭스와 새 퍼포먼스를 구상했다. 내피탭스는 보아의 '온리 원', 동방신기의 '휴머노이드' 등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다.

'수리수리마수리수수리사바'라는 가사에 맞춰 손으로 주문을 거는 동작, 마술사가 마임을 하는 듯한 동작 등 특색 있는 안무와 가사에 맞춘 유기적인 스토리 구성으로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무대를 꾸민다.

또 여성 댄서와의 커플 댄스를 비롯해 화려한 앙상블이 돋보이는 퍼포먼스로 기존에 보여줬던 힘이 넘치고 카리스마 있는 무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동방신기는 퍼포먼스의 묘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뮤직비디오도 원테이크 기법으로 제작했다.



'수리수리'는 솔 펑크 장르의 곡으로 주문에 걸리듯 점점 사랑에 빠져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7집 리패키지 앨범을 발표한 동방신기는 28일 KBS2 '뮤직뱅크'에서 '수리수리'의 첫 무대를 연다.

/유순호기자 suno@



진화는 계속된다!
SNL
KOREA
매주 |토| 밤 10시 tvN 생방송 / 3월 1일 |토| 밤 9시 50분 첫방송

‘푸른거탑’ 훈훈 ‘진짜 사나이’ 우울

군대 소재 두 프로그램 서로 다른 행보

‘푸른거탑’ 유종의 미… ‘진짜 사나이’ 맴버 돌연하차 논란

군대라는 공통된 소재를 다룬 두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행보를 택했다.

tvN 시트콤 ‘푸른거탑 리턴즈’는 26일 마지막 방송으로 ‘전역’했으며 MBC ‘일밤-진짜 사나이’는 기존 멤버 하차 후 후임을 받는 등 시청률 되찾기에 나섰다.

‘푸른거탑’ 시리즈는 군대를 배경으로 한 시트콤으로 남성에게는 공감대를, 여성에게는 신선한 재미를 선사하며 인기를 끌었다.

‘최코디’로 유명했던 최종훈은 ‘푸른거탑’에서 말년 병장 역을 소화해내 호평을 받았다. 그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먹먹하다”고 종영 소감을 전했다. 내레이션 담당 이용주도 “끝나면 시원할 줄 알았는데 마음이 많이 아리다”고 밝혔다.

‘푸른거탑’ 시리즈의 민진기 PD는 “그동안 열렬한 성원을 보내준 시청자와 촬영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육군본부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같은 소재를 예능으로 풀어낸 MBC ‘일밤-진짜 사나이’의 경우 최근 번개부대 편을 끝으로 초기 멤버들이 갑자기 사라져 ‘불명예 제대’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진짜사나이’는 초기 멤버였던 엠블랙의 미르가 하차하자 배우 장혁과 제국의아이들의 박형식을 후임으로 투입해 본격적인 인기몰이를 시작했다. 방송 합류 순서대로 계급을 정하는 ‘진짜 사나이’는 초기 멤버인 서경석·김수로·류수영·손진영·샘 해밍턴을 일병으로, 뒤늦게 합류한 장혁과 박형식은 이등병으로 등장시켜 마치 진짜 군대를 보는 듯한 재미를 안겼다.

하지만 레퍼토리 반복 등으로 시청률은 하락세를 탔고 제작진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후임병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멤버 류수영과 손진영이 중도 하차하자 논란이 일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인터뷰에서 병장으로 제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기에 하차는 더욱 갑작스럽게 비쳐졌다.

두 사람 대신 천정명·박건형·케이윌·슈퍼주니어M의 헨리 등이 합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김수로와 친분 있는 배우가 새 멤버로 투입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김수로는 “저는 새로운 멤버를 추천할 영향력이 없는 그냥 열심히 사는 배우”라고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류수영과 손진영이 중도 하차라는 불명예 제대로 프로그램을 떠난 사실은 그대로 남아 시청자들의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주인공의 50년 후 모습을 끝으로 막을 내린 tvN ‘푸른거탑 리턴즈’(위)와 새 출연진 영입에도 연이어 잡음을 빚고 있는 MBC ‘일밤-진짜사나이’(아래).

드라마 ‘멋진 의사’ 넘친다



올봄 안방극장에 멋진 의사들이 찾아온다.

이상윤은 4월 첫 방영될 SBS 새 주말극 ‘엔젤아이즈’에 의사 박동주 역으로 출연할 예정이다. 아픈 가족사 때문에 첫사랑을 떠나보낸 남녀 주인공이 12년 후 재회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이 드라마에서 그는 데뷔 이래 처음으로 의사 역에 도전한다.

학창 시절 우등생이었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 소방관이 되길 꿈꿨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의대에 진학해 또 다른 운명을 맞는 인물이다.

5월 시작할 SBS 새 월화극 ‘닥터 이방인’에서도 이종석(사진)과 박해진이 의사로 나선다.

드라마는 탈북한 천재 의사 박훈(이종석)이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에 근무하면서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메디컬 첩보 멜로물이다.

SBS 수목극 ‘별에서 온 그대’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박해진이 하버드대병원 출신 천재 의사 한재준 역을 맡아 이종석과 호흡을 맞춘다.

/탁진현기자 tak0427@



CJ헬로비전 지역채널 강화

CJ헬로비전 지역 채널이 막강한 진행자들의 담백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CJ헬로비전은 방송인 허참이 진행하는 ‘실버퀴즈쇼 청춘열전’(사진)과 가수 장윤정이 진행하는 테마 콘서트 ‘좋은 날’을 다음달 선보인다.

3일 첫 방송되는 ‘실버 퀴즈쇼 청춘열전’은 스마트 실버 세대를 위한 퀴즈 오락 프로그램이다. 단순 오락형 생활 퀴즈쇼가 아닌 고난도 상식 퀴즈 열전으로 지혜와 지식을 모두 갖춘 진정한 실버 브레인을 찾는다고 CJ헬로비전 측은 설명했다.

첫 녹화는 경남 밀양·김해·창원에서 진행됐으며 지역별 10명의 참가자를 뽑는 예선전에서만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여 실버 퀴즈 프로그램의 인기를 예고했다.

테마 콘서트 ‘좋은 날’은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콘서트 프로그램이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공감의 무대를 지향하는 열린 음악 콘서트로 기획됐다. 첫 방송은 13일이다.

이기용 CJ헬로비전 커뮤니티사업본부장은 “지역 채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HOT PHOTO



윤승아 ‘섹시 배드걸’ 배우 윤승아가 ‘배드걸’로 변신했다. 윤승아는 최근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더 셀러브리티 3월호에 시크한 매력이 돋보이는 화보를 공개했다. 블랙 튜브 톱 원피스에 블랙 초커를 둘러 영화 ‘레옹’의 내털리 포트먼으로 변신했다. 플라워 프린트의 시스루 톱과 오버 니삭스를 매치시켜 영화 ‘인타임’ 속 아만다 사이프리드를 떠올리는 패션도 시도했다. /양성운기자 ysw@

안방극장 男男커플 뜬다

‘별그대’ 김수현·김창완 이어 ‘쓰리데이즈’ 손현주·박유천 주목

“헤이 브로~.” 남자들의 친밀한 우정을 일컫는 브로맨스. 최근 방송가에선 두 남자 배우의 화학작용(케미스트리·이하 케미)이 작품의 인기를 이끄는 주요한 역할을 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SBS 수목극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에선 배우 전지현과 김수현의 사랑 못지않게 김수현(도민준)·김창완(장영목), 일명 ‘장도 커플’의 애틋한 우정도 화제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장영목이 젊은 시절 가난을 이유로 어머니와 자살을 하려다 도민준이 시간을 멈춘 뒤 구해줬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30년간 장영목은 도민준이 외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지구인으로서 그의 곁을 지켜왔다. 특히 도민준은 장영목을 ‘아버지 같은 존재’라 칭하고, 장영목은 자신의 행성으로 떠나야 하는 도민준을 두고 “자식을 앞세우는 심정”이라고 말하면서 ‘장도 커플’의 이별은 더욱 애잔함을 줬다.





SBS 수목극 ‘별에서 온 그대’의 김수현·김창완 커플(위)과 새 수목극 ‘쓰리데이즈’의 손현주·박유천이 ‘남남 케미’ 종결자에 도전한다. /HB엔터테인먼트·뉴시스

배우 손현주와 박유천도 ‘남남 케미’ 종결자에 도전한다. ‘별그대’의 후속작인 ‘쓰리데이즈’(다음달 5일 첫 방송)에서 손현주와 박유천은 각각 암살 위기에 처한 대통령 이동휘와 암살을 막으려는 경호관 한태경으로 출연해 남다른 연기 호흡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들의 환상 호흡은 작품 외에서도 엿볼 수 있다. 지난 26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손현주는 “정말 성실하고 말보다는 행동을 먼저 하는 건강한 젊은이”라며 “몸이 아픈데도 최선을 다해 액션을 촬영하고 있다”고 박유천을 칭찬했다.

‘남남 케미’는 색다른 재미는 물론 우정과 감동까지 전해줘 시청자들의 관심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전효진기자 jeonhj89@

유인나 "뷰티 비결? 잡곡밥만 먹어"

'겟 잇 뷰티' 새 MC 유인나 "군것질도 안해요"

'베이글녀' 유인나가 몸매 관리 비결을 공개했다.

온스타일 '겟 잇 뷰티'의 새로운 MC가 된 유인나는 27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새 시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자신만의 뷰티 노하우를 공개했다.

유인나는 "흰 쌀밥을 절대 먹지 않는다"며 "직접 잡곡밥을 해 먹고 삶은 양배추도 굉장히 좋아해 자주 먹는다. 또 군것질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운동을 자주 하진 못하지만 틈나는 대로 스트레칭을 하고 반신욕도 한다"며 몸매 비결을 공개했다.

또 유인나는 피부 관리 비결 질문에 "피부과는 자주 가지 않지만 내가 직접 짤 수 없는 뾰루지가 올라오면 피부과에 찾아간다"며 "집에서 천연 팩을 꾸준히 해준다"고 답해 뷰티 노하우의 정석을 알려줬다.

그는 또 시원한 입담으로 몸매 비밀도 거침없이 털어놨다.

간담회 시작 전 제작진이 공개한 유인나의 일상 모습이 담긴 영상에서 신체 사이즈에 대해 질문받자 "다들 생리 주기에 따라 다르지 않으냐"며 "그날그날 다른데 보통 B컵에서 C컵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솔직하게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또 1대 MC인 유진과의 비교에 대해 "유진씨는 인형 같은 미모를 자랑했다면 나는 좀 더 친근한 외모지 않나"라며 "제가 보디라인은 더 뛰어난 것 같다"며 새 MC로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유인나는 보조 MC 재경과 함께 "유진씨가 '겟 잇 뷰티'를 진행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다고 들었다"며 "저도 제 뷰티 노하우와 아이유·황정음·신세경씨 등에게도 뷰티 시크릿을 물어 알려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2010년 7월 첫 방송 후 여성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1등 뷰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겟 잇 뷰티'는 새해를 맞이해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겟 잇 뷰티'는 매주 주제에 맞는 유명 인사가 등장해 생생한 뷰티 정보를 알려줄 예정이다. 신설되는 코너 '셀럽스 토킹미러'에서는 청담동 미용실, 기획사 로비, 영화 촬영장 등 뷰티 셀러브리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솔직한 뷰티 노하우를 들어볼 계획이다. 새로 단장한 '겟 잇 뷰티'는 다음달 5일 방송된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온스타일 '겟 잇 뷰티'의 새 MC를 맡은 유인나(오른쪽)와 레인보우의 재경이 27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자신들만의 뷰티 노하우를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온스타일

청춘 소재 5편 영화 제작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청춘을 소재로 한 다섯 편의 시나리오를 선정해 제작에 들어갔다.

영화 '소문'은 김진무 감독 연출로 교내 학생회장 선거를 둘러싼 소문으로 생긴 죄의식과 불안감에 고통받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그렸다. 슈퍼주니어의 동해(사진)와 아이돌그룹 아이니의 우린이 출연한다.

김지묵 감독의 '외출'은 낙인으로 고통받는 아이를 통해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찬 세상을 표현했으며 그룹 타히티의 아리와 신인배우 김태완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세상에 믿을 놈 없다'는 주성수 감독이 연출하며 미래가 불안해 은행 강도가 되려는 세 젊은이의 이야기를 담았다. 감독은 "한탕주의를 난무하게 만든 사회를 지적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주연배우는 FT아일랜드의 송승현이다.

박가희 감독은 '훈련소 가는 길'을 맡아 군대라는 소재를 여자의 섬세한 시선으로 그려내고자 했다. 포미닛의 남지현과 '전설의 주먹'의 아역배우 구원, '백년의 신부'의 정해인이 캐스팅됐다.

'플레이 걸'은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여고생들의 이야기로 정원식 감독이 맡았다. '일진'으로 통하는 불량 학생들의 성장통을 그렸으며 배우 서은아와 김선아가 주연을 맡았다. /김지민기자

구조대원 구혜선

드라마 '엔젤 아이즈' 출연



배우 구혜선(사진)이 오는 4월 SBS 새 주말드라마 '엔젤 아이즈'(가제)로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엔젤 아이즈'는 가족 때문에 이별한 남녀가 12년 만에 재회하며 펼쳐지는 일을 그린 정통멜로 드라마다. 구혜선이 연기할 윤수완은 사고로 시력을 잃은 뒤 안구 이식수술을 받고 119 구조대원이 돼 씩씩하게 살아가지만 가슴 한편에 첫사랑을 그리워하며 살아간다. 남자 주인공 박동주는 이상윤이 맡았다.

구혜선은 "오랜만의 작품이라 설렌다"며 "극중 역할이 구조대원인 만큼 실제 훈련으로 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엔젤 아이즈'는 앞서 2009년 KBS2 '꽃보다 남자'로 구혜선과 함께했던 윤지련 작가가 집필한다.

구혜선은 "윤 작가님과 꼭 다시 작품을 함께하고 싶었다. 즐거운 작품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민기자

"대본 보자마자 확 끌렸죠"

'신의 선물' 이보영 엄마역

SBS 새 월화극 '신의 선물-14일'(이하 '신의 선물')에서 첫 모성애 연기를 선보이는 이보영이 출연 소감을 전했다.

이보영은 27일 목동 SBS 사옥에서 열린 '신의 선물'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출연 고민은 별로 안 했다"며 "대본을 보고 이런 장르물을 정말 하고 싶어서 선택했다. 특히 연기해보고 싶은 장면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극중 이보영은 보물 같은 딸 한샛별(김유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평화로웠던 삶의 균형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신의 선물처럼 딸의 유괴사건 발생 2주 전으로 돌아가는 엄마 김수현 역을 맡았다.

그는 "기대를 많이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약간 우울한 내용을 싫어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다"며 "미국 드라마 같은 느낌으로 찍고 싶었고, 그런 느낌이 시청자분들께도 잘 전달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로 2013 SBS 연기대상 대상을 거머쥔 이보영은 '신의 선물'로 다시 명품


'다정한 가족' 배우 이보영, 김유빈, 김태우(왼쪽부터)가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SBS 사옥에서 열린 SBS 월화드라마 '신의 선물-14일'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기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신의 선물'은 유괴된 딸을 살리기 위해 2주 전으로 돌아간 엄마 김수현(이보영)과 전직 강력계 형사 기동찬(조승우)이 의문의 납치범과 벌이는 두뇌게임을 그린다. 미스터리 감성 스릴러로 '따뜻한 말 한마디' 후속으로 다음달 3일 방송된다. /양성운기자 ysw@

아카데미 후보작 3편 상영

극장과 안방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을 미리 맛볼 수 있다.

메가박스는 다음달 2일(현지시간)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세 작품을 특별 상영한다. 시각효과상 후보에 오른 '스타트렉 다크니스'와 시각·음향효과상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호빗: 스마우그의 폐허', 10개 부문에 후보로 오른 '그래비티'를 3D 애트모스 버전으로 재상영하는 'M2 애트모스 스페셜 위크'를 개최한다.

메가박스 코엑스·목동·영통 M2관에서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관람료는 1만3000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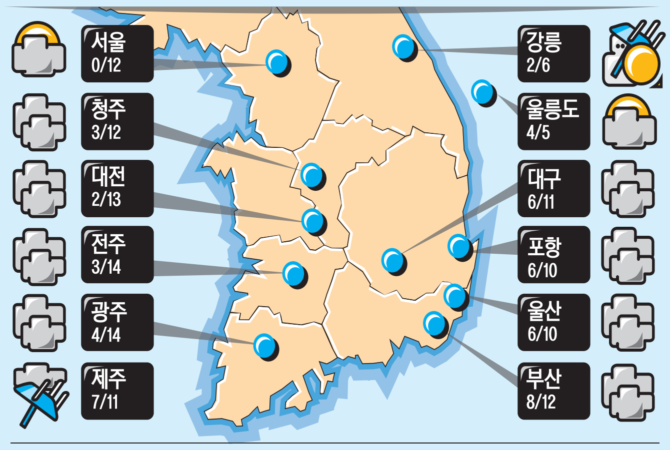
올레tv는 올해 후보작과 역대 수상작을 한데 모은 '아카데미 특집관'을 오픈한다.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그래비티' '캡틴 필립스' '블루재스민' '비포 미드나잇' 등 올해 후보에 오른 13개 작품을 다음달 5일까지 최대 60% 저렴하게 내놓는다. '인셉션' '레미제라블' '서칭 포 슈가맨' 등 역대 수상작 16편은 1000원에 서비스한다. 또 아카데미 시상식 VOD를 다음달 3일부터 무료로 제공한다. /유순호기자 suno@

날씨

2/28 金 일출시각 07:06 일몰시각 18:24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아침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또 식사 전 채소나 해조류, 나물을 먼저 먹으면 적은 식사량으로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기가능 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장충단을 비집고 들어선 박문寺, 씁쓸…



권기봉의 **도시산책** <70>



서울 장충동에 있는 신라호텔 정문(사진)은 여느 호텔의 그것들과는 사뭇 다른 모양새다. 조선의 5대 궁궐 가운데 하나인 경희궁의 정문 '흥화문'을 쏙 빼닮았다.

현재 신라호텔이 들어서 있는 남산 자락의 이름이 '춘무산'으로 바뀌고 거기에 '박문사'라는 사찰이 들어선 것은 지난 1932년 10월 26일의 일이다. 춘무산의 춘무(春畝)는 이토 히로부미의 호이고, 박문사의 박문은 이등박문(이토 히로부미)을 가리킨다. 이토 히로부미의 23번째 기일을 맞아 박문사를 세우면서 그 정문으로 쓰려고 흥화문을 떼어왔던 것이다.

박문사가 들어선 곳은 원래 장충단 영역이기도 하다. 장충단은 명성황후 시해사건, 즉 을미사변 당시 일본군에 맞서 싸우다 죽은 조선 군인들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웠던 제단이다. 그랬던 곳을 일제는 벚꽃을 심으면서 공원화해버렸고, 급기야 한쪽에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는 사찰까지 지어버렸다.

물론 해방 뒤 박문사의 운명은 온전하지 않았다. 본전이 있던 곳 주변에 일제의 기를 누른다며 '민족중흥(民族中興)'이라 새겨놓은 암반만이 그 역사를 어렴풋하게나마 증언해주고 있을 뿐이다. 흥화문도 지난 1988년 경희궁으로 옮기면서 그것을 본뜬 지금의 새 문을 세워놓은 상태다.

그런데 거기까지다. 장충단을 비집고 들어선 박문사와 그것을 세운 의도는 사라졌을지언정 그 피해자들의 문제는 여전하다. 자그마치 1114회의 수요집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서 피폭당한 조선인과 그 후손들, 동토에 남겨진 '사할린 한인'과 '시베리아 억류 한인 포로', 해방 후에도 한참 동안 격리된 채 살아온 '한센인' 등 일제가 잉태하고 한국 정부가 방치해온 문제들은 여태 해결되지 않은 채 잊혀져 가고 있다.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1				7	
	5			7				
9	7					2	4	8
			6		1			2
5		4				1		7
2			8		7			
8	9	7					6	4
				6			3	
	3				9			1

6	9	3					7	
		8		2	9		3	
	5					6	4	
4				7	5			
			1	9	4			
			8	6				3
	8	9					2	
	1		2	8		9		
	6					3	8	1

스도쿠 정답

4	2	6	1	9	8	3	7	5
3	5	8	2	7	4	9	1	6
9	7	1	5	3	6	2	4	8
7	8	3	6	5	1	4	9	2
5	6	4	9	2	3	1	8	7
2	1	9	8	4	7	6	5	3
8	9	7	3	1	2	5	6	4
1	4	2	7	6	5	8	3	9
6	3	5	4	8	9	7	2	1

6	9	3	5	4	1	2	7	8
7	4	8	6	2	9	1	3	5
1	5	2	7	3	8	6	4	9
4	2	1	3	7	5	8	9	6
8	3	6	1	9	4	7	5	2
9	7	5	8	6	2	4	1	3
3	8	9	4	1	6	5	2	7
5	1	7	2	8	3	9	6	4
2	6	4	9	5	7	3	8	1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친구와 강남에 영어학원 계획 동업하면 도움되니 도전할 만

복바치 남자 74년 2월 25일 음력 점심때

Q 복지기관에서 교육 계통의 일을 하고 있는데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친구와 함께 강남에 영어학원을 차리려고 합니다. 선뜻 나서기 꺼려지는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A 사주 뿌리에 화(火)기가 있어 약화위강(弱化爲强)돼 복을 얻겠으나 공무원으로 가지 않고 다소 벗어나서 직업을 갖게 됩니다. 사주는 개개인의 성품과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런 까닭에 사주를 풀어보면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그중 겁살(劫殺)과 망신살(亡身殺)이 있는데 흉성이라고 할 수 있고 겁살은 심성을 분석하고 망신살은 심성이나 정치성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한 나라를 얻고자 함도 아니며 재벌이 되고자 함도 아닌데 개개인들이 어찌 일일이 다 분석하며 살겠습니까. 닥쳐있는 상황에서 힘이 약할 때는 동업이나 합자로 힘을 얻기도 하는 게 현실의 논리일 테니 양보심으로 선택하십시오.

공무원 시험 응시할까 하는데… 일단 현재 직장에 최선 다해야

나배려 79년 6월 23일 음력 오후 8~9시

Q 현 직장을 꾸준히 잘 다닐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혼인데 결혼은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볼까 하는데 운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일이며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 또한 해마다 다르고 힘들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부딪치는 일들은 천차만별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별 문제 없어야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지요. 운이 솟구칠 때는 순식간에 멀리 내닫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결과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운이 뒷받침해줄 때 많이 생깁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돈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우선 현재 처해있는 환경에 최선을 다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2월 28일 (음 1월 29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쥐 **48년생** 자손이 원하던 일이 이뤄진다. **60년생** 높은 곳은 사고 따르니 조심할 것. **72년생**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오른다. **84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소 **49년생** 말썽 많은 일엔 나서지 마라. **61년생** 헌신적인 노력에 칭송 쏟아진다. **73년생** 사람은 많이 만나지만 소득이 거의 없다. **85년생** 바짝 긴장할 일이 생긴다.

호랑이 **50년생**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니 즐겁다. **62년생** 일자리가 못마땅해도 참아라. **74년생** 정성 쏟은 사람은 기대에 부응한다. **86년생** 의욕 넘칠 때 실수 조심하라.

토끼 **51년생** 불분명한 사람은 멀리할 것. **63년생** 생각 많으면 찾아온 기회 놓친다. **75년생**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조심할 것. **87년생** 연인이 마음을 알아줘 힘이 솟는다.

용 **52년생** 투자 진행해도 무방하다. **64년생** 욕심 버리고 마음부터 안정시켜라. **76년생** 부당한 일에 발을 들이면 빼도 박도 못 한다. **88년생** 과음으로 인한 실수 조심.

뱀 **53년생** 좋은 꿈 꿨으면 로또라도 사라. **65년생** 멀리서 반가운 벗이 찾아온다. **77년생** 몸은 힘들지만 기분은 유쾌. **89년생** 마음먹은 일 진행하면 행운도 따른다.

말 **42년생** 가는 날이 장날인 격이다. **54년생** 경사로 한잔하면 언제나 즐거운 법이다. **66년생** 재운이 열려 거래 활발해진다. **78년생** 친구 너무 믿으면 눈물 흘린다.

양 **43년생** 오전엔 고전하지만 오후에는 순탄하다. **55년생** 욕심 부리면 구설수 따른다. **67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니 마음 비워라. **79년생** 게으르면 꿈도 멀어진다.

원숭이 **44년생** 작은 것이 나가고 큰 것이 들어온다. **56년생** 이웃의 다툼엔 팔짱 껴라. **68년생** 마음을 똑바로 먹으면 복이 굴러온다. **80년생** 과욕으로 인한 재앙 조심할 것.

닭 **45년생** 작은 것에 만족하니 편안하다. **57년생** 기회 앞에 망설이면 꿈은 멀어진다. **69년생** 운기 별로이니 두문불출이 상책. **81년생** 하고 싶었던 일을 맡아 즐겁다.

개 **46년생** 환자는 병세가 호전된다. **58년생** 엉뚱한 일에 지출하지 마라. **70년생** 지출 적지 않지만 들어오는 게 더 많다. **82년생** 귀는 닫고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라.

돼지 **47년생** 자기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라. **59년생** 뜻대로 일이 풀려 자신감이 넘친다. **71년생** 업무상 금전 손해 조심할 것. **83년생** 일이 밀려 몸도 마음도 바쁜 하루.

모비스 8연승…단독 1위 수성

여자부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승 극적 저지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가 고양 오리온스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단독 선두 자리를 지켰다.

모비스는 27일 울산동천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정규리그 홈 경기에서 오리온스를 79-54로 이겼다. 주포 양동근이 3점슛 3개를 포함해 21점을 올리고 어시스트 4개를 곁들여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승리로 8연승을 해 37승13패를 기록한 모비스는 2위 창원 LG(36승14패)와의 격차를 1경기로 벌리며 선두를 유지했다. 오리온스(24승26패)는 4연패 수렁에 빠졌다.

모비스는 경기 초반부터 오리온스를 제압했다. 양동근과 리카르도 라틀리프가 연속 득점을 해 줄곧 약 20점 차로 앞섰다. 반면 오리온스는 모비스의 수비에 실책을 연발했다. 4쿼터 초반에도 함지훈과 양동근에게 골을 연속으로 내줬다.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공동 4위간의 경기에서는 인천 전자랜드가 18점, 7리바운드를 기록한 리카르도 포웰의 활약에 힘입어 부산 KT에 70-63으로 이겼다.

전반 내내 끌려가던 전자랜드는 3쿼터 종료 3분 15초 전 김지완의 3점슛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이로써 3연승을 내달린 전자랜드는 26승24패로 단독 4위가 됐다.

여자부 경기에서는 안산 신한은행이 춘천 우리은행의 우승을 극적으로 저지했다.

신한은행은 27일 경기도 안산 와동체육관에서 열린 우리은행 2013~2014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우리은행과 홈 경기에서 75-72로 승리했다.

경기 내내 우리은행에 뒤졌지만 후반에만 20점을 몰아친 쉐키나 스트릭렌과 7득점을 넣은 김연주의 선전으로 승리했다.

단독 선두 우리은행은 이날 이겼다면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 지을 예정이었으나 2위 신한은행에 패해 3월 2일 춘천 홈 경기를 기약하게 됐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프로농구 전적 27일

전자랜드	16	13	22	19	70
KT	24	10	16	13	63
모비스	22	17	19	21	79
오리온스	10	13	19	12	54
신한은행	15	20	15	25	75
우리은행	28	15	15	14	72



"우승 그냥 못줘!" 27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경기에서 신한은행 곽주영(왼쪽)과 우리은행 퀸이 리바운드 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경기 내내 끌려가다 4쿼터 역전에 성공, 75대 72로 승리해 우리은행의 정규리그 우승을 막았다. /연합뉴스



이승훈 5000m 대회신

소치올림픽을 마치고 돌아온 이승훈(26·대한항공·사진)이 전국동계체육대회 남자 5000m에서 대회 기록을 갈아치우며 우승했다.

이승훈은 27일 서울 노원구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95회 동계체전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일반부 5000m 경기에 제주 대표로 출전해 6분35초92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2011년 주형준(한국체대)이 세운 종전 대회 기록(6분52초74)에 크게 앞섰다.

지난해 동계체전 1500m와 1만m 1위에 오른 이승훈은 5000m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유순호기자

윤석민 등판 미뤄질수도

비자 발급차 5일 캐나다행

'볼티모어맨' 윤석민(28)이 취업비자 발급을 위해 다음달 5일 캐나다 토론토로 이동한다.

다음달 8일로 예정됐던 윤석민의 시범경기 등판 일정도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볼티모어 지역 언론 MASN은 27일 "윤석민이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 5일 캐나다로 간다"면서 "3월 8일로 예정됐던 시범경기 등판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벅 쇼월터 볼티모어 감독은 윤석민을 8일 필라델피아와의 시범경기에 내보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민의 비자 발급이 늦어지면서 등판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윤석민은 현재 팀 동료들과 함께 훈련하고 있다. 비자가 없어도 훈련은 가능하지만 공식 경기에는 나설 수 없다. 결국 윤석민은 캐나다로 넘어가 2~3일 정도 머물면서 비자 문제를 해결한 뒤 시범경기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윤석민과 선발 경쟁을 펼치는 볼티모어 투수들은 이미 등판 일정을 확정한 상태다.

케빈 거스먼(23)은 27일 열린 자체 평가전에서 97마일(156㎞)의 빠른 공을 던져 주목받았고, 버드 노리스(29)는 28일 평가전 등판을 준비하고 있다. /양성운기자 ysw@

프로배구 전적 27일

GS칼텍스	3	0	흥국생명
우리카드	0	3	러시앤캐시


"소치 영웅들 사인 받자" 소치 동계올림픽을 마치고 돌아온 스피드스케이팅의 이규혁·이상화와 쇼트트랙의 신다운(아래부터)이 2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개최한 사인회에 인파들이 몰려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김은중 11년만에 친정팀 대전 입단

시즌 플레잉 코치 역할



'샤프' 김은중(35·사진)이 플레잉 코치로 11년 만에 친정팀인 대전 시티즌 유니폼을 입는다.

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2부리그) 대전 시티즌은 27일 "김은중을 영입하고 선수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김은중은 이번 시즌 플레잉 코치로 뛰게 된다"고 밝혔다.

1997년 대전 창단 멤버로 프로에 데뷔한 김은중은 2003년까지 7년 동안 대전 소속으로 167경기에 나서 42골 13도움을 기록하며 최고의 스타로 인정받았다.

김은중은 2004년 FC 서울로 이적한 뒤 제주 유나이티드, 강원 FC, 포항 스틸러스를 거쳐 11년 만에 친정팀으로 돌아가게 됐다. /양성운기자

"그리스전 모든 전술 시험"

홍명보 감독 "가장 감동받은 소치 장면 팀추월 銀"



브라질 월드컵 준비에 한창인 홍명보(사진) 축구대표팀 감독이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추월을 보고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홍 감독은 27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표팀 유니폼 공개 행사에서 "개개인의 기능은 떨어지는데도 은메달을 따냈다. 한국의 모든 단체 스포츠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장면"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팀추월은 세 선수가 한 조를 이뤄 마지막 선수의 기록으로 겨루는 경기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가 포함돼 있더라도 한 명이라도 처지면 성적을 낼 수 없어 어느 종목보다 팀워크가 중요하다.

홍 감독은 "우리 축구대표팀에 있는 선수들도 다른 나라 선수들보다 경험과 기술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우리 선수들이 개인적인 기술을 뛰어넘는 힘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6일 그리스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있는 홍 감독은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총체적인 전술을 점검할 예정이다. 1~2월 미국에서 평가전을 치르며 국내파 위주로 팀을 꾸렸던 그는 유럽파를 전원 소집해 본격적으로 실전에 대비한다.

한편 이번 월드컵에서 선수들이 입을 유니폼을 최초로 접한 홍 감독은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끝나고 어떤 결과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치의 후회도 없이 월드컵을 준비하고 마치고 싶다"고 결의를 다졌다.



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대한민국의 별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은 그녀들이
더 밝은 별이 되어 만났습니다
국민 모두가 반짝이는 그 날까지
KB금융그룹이 함께 하겠습니다
KB금융그룹이 후원하는 가족 : 김연아, 이상화, 심석희, 김해진, 박소연, 대한빙상경기연맹, 대한컬링경기연맹